

사천 지역사 가이드북

나고 자란
우리 사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사천 우주항공 특별판-



사천 지역사 가이드북
나고 자란
우리 사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사천 우주항공 특별판-





사천 지역사 가이드북



나고 자란

우리 사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사천 우주항공 특별판-

나고자란 우리사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초판인쇄 및 발행	2017년 9월 22일
2판인쇄 및 발행	2018년 11월 16일
3판인쇄 및 발행	2019년 11월 18일
4판인쇄 및 발행	2020년 12월 15일
5판인쇄 및 발행	2022년 07월 06일
6판인쇄 및 발행	2023년 10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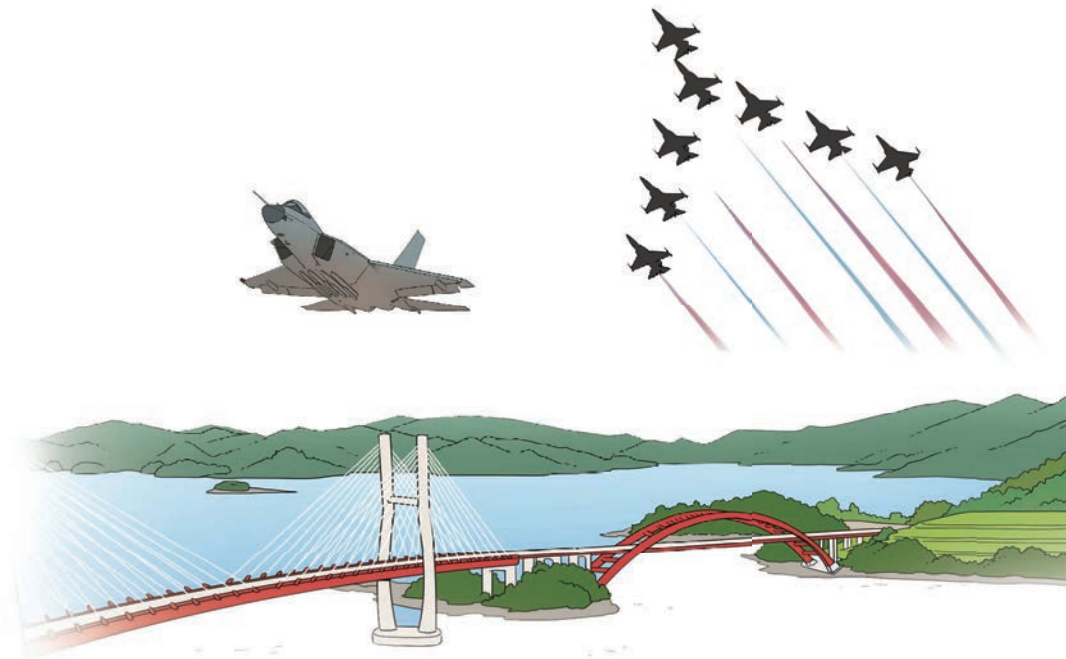
펴낸이 사천문화재단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17(대방동)
055-835-6416

글 경남도민일보
(우)513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38(양덕동)
055-250-0194

사진 사천시 · 사천문화재단 · 경남도민일보

저작권은 사천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사천문화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매품





차 례

1장. 내 고향 사천은

사천의 상징물	8
내 고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12

2장. 자연환경

우리나라 갯벌의 대표선수는?	18
사천의 바다는 보물 창고다	20
철새들의 정거장 광포만 갯잔디	22

3장. 역사

거북선이 처음 등장한 사천해전	30
사천 사람이 세운 이순신 장군 동상	36
왜적을 대파한 이광악 장군	39
유일한 해양군사유적 대방진굴항	45
남해안의 최전선 각산산성과 봉수대	48
왜적의 전략기지 선진리왜성	52
선진리성 벚꽃놀이의 배경은 일본?	55
치욕스러운 선진리성 전투의 패배	58
아직도 진행 중인 조명군총의 비극	60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지다	64
소나무와 차로 유명한 다솔사	69
다솔사에 담긴 정신	71
사천의 빛나는 인물 최범술	75

조선 선불교 중흥의 주역 부용영관선사	78
두 임금의 태가 문헌 명당의 땅 사천	80
“와룡, 고려 현종을 품다”	81
고려 현종 부자상봉길	82
용으로 돌아갈 사람이 사는 동네, 능화마을	85

4장. 문화

삼천포대교가 찾아낸 국제무역항 늑도	100
죽방벌, 지혜로운 바다 사람들	102
갯벌에 어린 사람 사는 이야기	107
지리산 유람의 출발지 사천	111
사천의 대표 선비 구암 이정	113
갯벌에 문화유적이 많은 까닭은?	114
석장승이 있는 근처는 바다였다?	116
매항과 함께 묻은 간절한 소망	119
고기잡는 고달픔을 달래다-사천마도갈방아소리	123
한국 농악의 본보기 진주·삼천포농악	130
가산창이 낳은 민속놀이 가산오광대	133
별주부전의 설화를 품은 비토섬	135
유교의 전통을 잇는 사천향교·곤양향교	137
박재삼 시인과 박재삼문학관	144
	146

5장. 오늘의 사천

오감만족형 전문 과학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152
실물을 볼 수 있는 사천항공우주박물관	154
	156

남해에서 으뜸가는 남일대해수욕장	158
창선·삼천포대교, 사천의 명물이 되다	162
사천바다케이블카	165
해양생물의 보고 아라마루아쿠아리움	166
무지개해안도로	168
토요상설무대 프리포즈와 락페스티벌	170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사천미술관	171

특집. 사천 우주항공산업, 우주를 꿈꾸다! 174

사천은 우주항공산업의 요람 176

우리나라 항공기의 역사를 쓰는 도시, 사천	179
국산1호 항공기 '부활호', 사천 하늘을 날다	180
부활호가 사라졌다니요?	182
다시 부활하라!	184
잠깐, 일제강점기 군용 비행기 격납고가 사천에 있다고요?	189

새처럼 창공을 날고자 했던 꿈, 전투기 만드는 기술까지	195
신화에서 날개는 하늘을 꿈꾸고	196
예술과 과학을 합체하여 하늘을 날고자 한 예술가들	198
조선시대에 하늘을 나는 비차(飛車)가 있었다고요?	203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천	208
항공산업이 뭐냐고요?	209
항공산업의 사천시대는 KAI와 함께	211

전투기 조립으로 비행기 국산화를 이루다	215
한국형 기동헬기,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되다	217
잠깐, 비행기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219

사천에어쇼, 우주시대를 꿈꾸다	225
해마다 가을이면 사천에서 우주를 꿈꾼다	226
달에서는 아직도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요?	228
우주복을 입어보고 싶다고요?	230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어디까지?	231
우주항공기술 교육의 도시	234





01



02



03



04



05

1장. 내 고향 사천은

사천 9경

- 01_ 창선 · 삼천포대교
- 02_ 실안낙조
- 03_ 남일대 코끼리바위
- 04_ 선진리성 벚꽃
- 05_ 와룡산 철쭉
- 06_ 봉명산 다솔사
- 07_ 사천읍성 명월
- 08_ 비토섬 갯벌
- 09_ 용두공원과 청룡사 겹벚꽃



06



07



08



09

안녕!

나는 사천시를 알리는 캐릭터 '또록이'야.
친구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인 2000년에
탄생했어.

그런데 이번에 우주복을 챙겨 입고
새롭게 '짠' 변신을 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도시인 사천시를
널리 알리는 일을 하게 될거야.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록 해.

<나고 자란 우리 사천, 이 정도는 알아야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가워~~^^



"또록이"는 맑고 똑똑한 아이의 뜻을 가진 말로 항공우주시대를 개척하는 선두주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미래의 최첨단 도시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기로 해요.

사천 상징물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안쪽 무늬는 사천을 나타내는 출렁이는 파도이고요. 화합과 단결을 표현하는 동그라미는 원만하게 어울리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 발전과 번영을 이루자는 커다란 포부를 담고 있는 멋진 상징물 이랍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훨씬 친근하게 느껴 지겠지요.



친구들!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 사천시도 상징물이 있어요. 상징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록이가 차근차근 소개를 할테니

사천 하면 명산 와룡산이지요. 봄이면 와룡산에 지천으로 피는 철쭉이 사천의 꽃인데 번영을 상징해요. 가을이면 노란 단풍이 고운 은행나무는 화합을 상징하는 사천의 나무지요.

그렇다면 사천의 새는 뭘까요? 맞아요. 바다 하면 사천이니만큼 당연히 갈매기! 갈매기는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한려해상의 중심부에 있고 해양관광도시로 비상하는 사천시의 진취적 기상과 화합을 담은 뜻이에요.

내 고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요즘은 세상이 무지 빠르게 변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 전이 옛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친구들은 이제 손바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들여다 볼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른들이 그 나이쯤이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나고 자란 내 고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장에 관한 것들이 시험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다들 지역보다는 서울이 최고라고 여기지요. 그런 현실에서 친구들이 내 고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친구들

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외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거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것에 관심을 두고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뻗어 올라가고 잎이 무성해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튼튼하게 성장시켜준 나고 자란 고장이 바로 친구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알아야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고장을 아는 것은 친구들이 기본을 제대로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나요? 뭐든지 이유를 알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요!



2장. 자연환경



사천대교 앞 "갯벌 탐방로" 노을 풍경

우리나라 갯벌의 대표선수는?

자, 이제부터 우리 고장 사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행기 혹은 우주항공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천의 대표선수가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 하면 사람들은 흔히 순천만 갯벌, 서해안 갯벌을 먼저 떠올립니다. 잘 다듬어지기로 치자면 순천만이 1등이고 광활하기로 치자면 서해안 갯벌이 1등이긴 하지요. 근데 사천에 어마어마한 갯벌이 있어요.

사천 갯벌이 얼마나 광활하냐면 경남 전체의 갯벌이 100이라면 절반인 50 이상이 사천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니까요. 갯벌을 빼고는 사천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지만 경남 사

람들은 물론이고 사천 사람도 그래?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 광활한 갯벌을 토대로 들어선 게 바로 사천을 대표하는 우주항공산업입니다. 바다인 갯벌과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우주항공산업이 무슨 상관이지 싶다고요? 비행기가 뜨고 앓기 위해서는 주변에 산이나 다른 장애물이 없는 넓은 땅이 필요한데 갯벌이 안성맞춤이라는 거지요.

이것 말고도 갯벌이 사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갯벌은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환경을 정화해주기도 하고, 갯가 사람들에게는 먹고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갯벌에 사는 낙지, 개불, 게, 조개, 굴, 쪽 등은 귀중한 양식이 되어 주었고 시장에 내다 팔아 자식들 공부를 시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갯벌을 매립하기도 하고 공장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갯벌이 점점 줄어듭니다. 갯벌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공장이 들어서면서 넉넉해진 생활을 비교하는 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자연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개발을 해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인가요? 이렇든 저렇든 인간 생활에 보탬을 주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갯벌이 참 고맙습니다.

사천의 바다는 보물 창고다

갯벌뿐만이 아니라 사천만은 바다도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잘피

사천만 얕은 바다에는 잘피 같은 물풀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물풀이 우거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구요? 물고기들은 꼭 이런 곳에다 알을 낳거든요. 또 알에서 깨어난 어린물고기들이 노닐기 좋은 데도 물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지요. 남해바다를 풍성하게 하는 물고기들의 으뜸 산란장이 바로 사천만이랍니다.

사천만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비밀은 사

천만으로 흘러드는 풍부한 물줄기에 숨어 있습니다. 물줄기들이 여러 갈래로 흘러들면서 흙과 모래를 부지런히 실어 날라 갯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무심히 흐르는 물길이 알고 보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포만 갯벌

철새들의 정거장 광포만 갯잔디

사천만 서쪽 부분을 이루는 광포만은 갯잔디가 대단합니다. 광포만 갯잔디는 규모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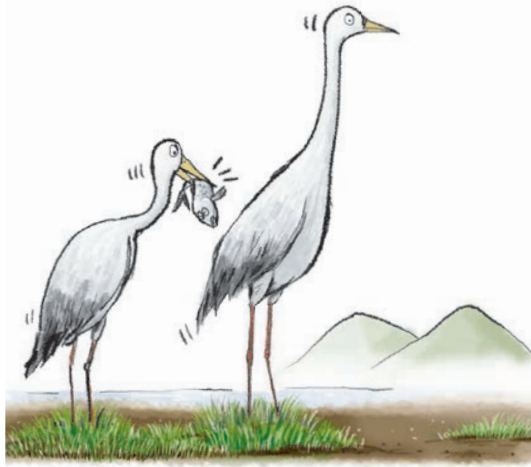
덕분에 재두루미 같은 겨울철새들한테는 중간에 쉬어가는 정거장 구실을 합니다. 겨울 철새들은 동쪽 부산의 낙동강 하구와 서쪽 전남 순천



광포만 갯잔디 위에 놓여 있는 재첩잡이 도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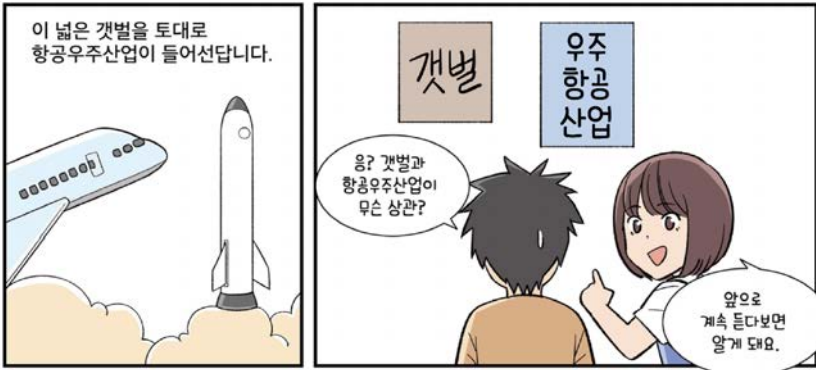
의 순천만을 오가는데 그 가운데 광포만 갯잔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나긴 여정에 부상자 아니~ 부상조나 낙오조가 속출 하지나 않았을까요.

갯잔디에는 기수갈고등이나 대추귀고등처럼 크고 작은 조개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조개들은 먹이사슬의 가장 낮은 부분에 있



으면서 철새를 비롯한 다른 여러 생물들한테 소중한 먹이가 되어주지요.

갯잔디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게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게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범벅이 된 펄을 입으로 집어넣어 흠은 다시 깨끗하게 내보내고 오염물질은 삼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오염물질이지만 게한테는 그것이 양식이 되거든요.





다솔사

3장. 역사

거북선이 처음 등장한 사천해전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순신 장군을 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요. 이순신 장군은 남해안 곳곳에서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남해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니까요.

바다의 고장 사천에서는 어떤 활약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그 유명한 거북선이 실제로 투입된 최초의 전투가 바로 사천해전이랍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때 활약한 거북선은 모두 몇 척이었을까요? 재밌게도 많은 사람들이 12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명량해전을 앞두고 임금께 아뢰었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모두 3척이라고 하면 의외로 적은 숫자에 놀라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그해 5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사천해전이 치러집니다. 왜적은 전선 12척을 대어놓은 채 선진리성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12척이 나오네요. 이순신 장군은 물러나는 척하면서 왜적을 바닷가로 유인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밀물이 들자 거북선을 앞세워서 왜군을 무찌르고 적선을 모두 불태

웠습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불패 신화 뒤에는 숨은 비결이 있어요.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자연의 이치를 잘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사천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물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두었지요.

질 만한 싸움에는 나서지 않은 것도 불패 신화의 큰 요인이었습니다. 잘 싸우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무모한 싸움을 하지않는 것, 그 또한 뛰어난 전략이라는 사실! **‘용감하게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통해 이런 지혜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천해전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편으

로 이순신 장군에게는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왼편 어깨에 총알을 맞아 상처를 입었는데 그 탓에 두고두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좋은 약이 있으면 깨끗하게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지요. 한편으로 오늘날처럼 성능이 뛰어난 총이었다면 이순신 장군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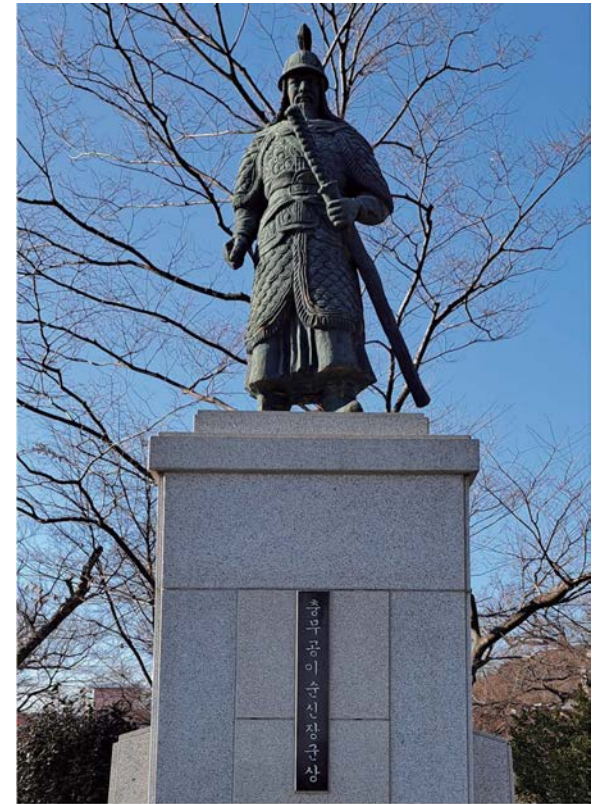


사천 사람이 세운 이순신 장군 동상

사천해전을 기념하여 용현면 연호리 출신 재일 동포 윤익성씨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1976년 4월 11일에 세웠어요. 동상앞에 있는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주권국가가 된 고향 땅에 대성 금의환향하여 충무공께서 거북선을 출동시켜 왜적선을 격멸시킨 유서 깊은 선진해전지 입구 이 자리에 충무공의 유비무환 정신을 사표로 세운다”

원래는 선진리성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용현면 선진리 신기마을 옛 도로의 삼거리(석거리) 한가운데 있어서 누구나 지나가면서 손쉽게 우러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새 도로를 내면서 서남쪽으로 700m 남짓 떨어진 4차로 한쪽 구석으로 옮겨졌어요. 선진리성으로 가다가 보면 오



이순신 장군 동상

른편인데 눈에 잘 띄지 않아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많습니다. 모습이 제각각인데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바라보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거제 옥포대첩기념공원 근처 도롯가에는 값싼 재질로 만든 이순신 장군 동상이 늘어서 있는데 광화문 동상 모습을 하고 있어 왠지 멋지게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사천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절로 푸근해진답니다. 친구들도 꼭 한 번 동상을 찾아가 보세요. 다른 곳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왜적을 대파한 이광악 장군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말고도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어요. 크게 이름을 떨치지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조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으로 이광악 장군을 꼽을 수 있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광악 장군은 우리 사천의 곤양 군수를 맡고 있었어요.

어 곤양 군수라고? 사천에 곤양면이 있긴 한데 그러면 면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한 번 정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합해지고 나뉘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같은 사천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 조

선 시대에는 곤양면 일대가 사천시 서포면과 하동군 금남면까지 아울러서 독립된 행정 단위로 곤양군이었습니다.

이광악 장군은 곤양군수로 있으면서 고을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커다란 전공도 세웠습니다. 남해 현령은 왜적의 침략 소식만 듣고도 깜짝 놀라 백성을 내팽개치고 달아났지만 이광악 군수는 곤양 일대도 잘 다스리고 왜적도 무찔렀다고 합니다.

왜적들이 전라도를 침탈하기 위해 서부 경남의 거점 도시인 진주성을 먼저 손아귀에 넣으려고 3만 대군으로 진군해 왔어요. 바로 그 유명한 진주성 전투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친구가 있을라나요.

1592년 10월 이광악 장군은 곤양의 날랜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진주성으로 들어가 김시민 장군과 함께 성을 지키며 왜적과 싸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시민 장군이 10일 밤중에 적군의 총탄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가장 앞장서 싸우면서 전투를 지휘하던 대장이 갑자기 쓰러졌으니 당시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혼비백산 우왕좌왕 난리가 났겠지요.

이때 이광악 장군은 북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김시민을 대신해 총지휘관이 되어 다른 장수들을 독려하며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성벽에 개미처럼 달라붙어 올라오는 왜적들에게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끓는 물을 붓고 폭탄을 던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왜적이 양견마를 타고 군사를 지휘하며 쳐들어오는 것을 화살로 쏘아 맞혀 죽인 것도 이광악 장군이었습니다. 왜적들이 모두

통곡하며 시체를 메고 돌아가자 성안에 있던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이에 왜적들은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진주성을 에워쌌던 포위를 풀고 물러나 조선 군사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광악 장군은 전투도 잘했지만 급박한 정세에서 상황 분석과 심리 파악까지 잘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선조실록>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보도록 해요.

“10월 8일 김시민이 ‘성을 온전하게 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몰래 수문을 열어 노약자를 내보내야 겠다’고 하자 이광악이 ‘그러면 군사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해 성을 지킬 수 없다’며 큰소리로 말했다.”

어때요? 정확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투력을 모

두 갖춘 인물이 바로 이광악 장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598년 침략의 원흉 토요도미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이를 가장 먼저 조정에 보고한 사람도 바로 이광악 장군이었다고 해요. 첩보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장군이시지요.

<선조수정실록>을 보면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기록도 나와요. “인품이 기가 세고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데 위엄이 있으며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고 집안에서 효성과 우애가 좋다.”

이광악 장군의 활약상을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지금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유명한 몇몇 분들만 기억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곽재우 장군…… 등등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악 장군 같은 훌륭한 인물

을 찾아 널리 알리는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나저나 머리에 총탄을 맞은 김시민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적이 물러가고 극진한 간호와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10월 18일 서른 아홉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해양군사유적 대방진굴항

사천에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대방진굴항이 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아래쪽 군영숲 바로 옆에 있는데요, 원래 생긴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바깥 바다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굴처럼 파서 만든 항구라 굴항이라고 하지요. 다른 지역에서는 굴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고려 말기인 14세기에 왜구가 들끓자 이를 막으려고 구라량이라는 진영을 설치했던 자리인데 ‘진영’은 요즘으로 치면 해군기지라고 보면 맞아요.

이 구라량이 조선 세종 시절(15세기) 고성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거의 비워졌다가 다시 진영을 설치한 것이 순조 시절(19세기)이지요. 활처럼 둥글게 독을 쌓아 전선 두 척과 병사 300명을 두어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굴항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임진왜란은 16세기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거북선을 숨겨두었다느니 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

대방진굴항



닐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사람들이 대충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논란과는 상관없이 대방진굴항은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틀어 사천에 하나밖에 남아 있지않는 해양군사유적이기 때문이지요.

같은 조선시대 군사시설로 창원시 진해구에 안골포굴강이 하나 더 있기는 하지만 원래 생긴 제 모습대로 온전하게 남은 것은 대방진굴항뿐입니다. 지금은 잘 자란 나무와 곡선의 굴항이 어우러져 심지어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진 모습을 하고있습니다.

남해안의 최전선 각산산성과 봉수대

앞에서 대방진굴항이 해양군사유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짝을 이루는 전통시대 군사 시설이 육지에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 각산에 있는 봉수대와 산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각산은 사천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산이지요. 창선·삼천포대교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동북쪽에 솟아있는데 여기 정상에서 초양도로 이어지는 사천의 명물 바다케이블카가 출발합니다.

도심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는 각산은 해발 408m로 그다지 높지도 가파르지도 않아 늘 사람들이 붐비는 친숙한 산입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삼천포와 남해 일대에 점점이 흩어진 섬들과 창

선·삼천포대교 등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멋진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지요.

지금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옛날 왜적이 들끓던 시절에는 살벌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자리였어요. 왜적들이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남해안으로 쳐들어오려면 창선·삼천포대교가 놓여 있는 삼천포해협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앞바다가 한눈에 장악되는 각산 정상은 그런 움직임을 미리 탐지하기에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봉수대를 마련해 두고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침략 여부를 사방에 알렸어요.

산성은 방어와 공격을 목적으로 쌓게 되는데 봉수대 서쪽 조금 낮은 자리에 마련돼 있는 각산산성은 삼천포 일대에 살던 백성들이 대피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왜적들이 상륙하게 되면 군사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던 곳이기도 했어요.

봉수대는 자연석을 모아 둥그렇게 2단으로 쌓았는데 불을 지피는 데 쓰였을 뚫린 공간이 네모꼴로 남아 있고 오르내리는 계단도 있습니다. 봉수군들이 머물던 막사와 자재를 쌓아두던 창고 등 건물터도 발굴해 복원해 놓았습니다.



각산산성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 무너지고 돌로 쌓은 성벽 240m가량과 남쪽 성문만 원래 모습으로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복원을 해서 한 바퀴 빙 둘러볼 수도 있도록 해 놓았어요. 안에는 기와집 건물도 한 채 조성해 놓았답니다.

각산봉수대와 각산산성은 고려 말기 14세기 대 방진굴항이 있는 일대에 수군 진영을 설치할 때 함께 설치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인 백제 시대 그러니까 600년대 초·중반에 처음 쌓았다는 얘기도 있지요. 어쨌거나 아주 오랜 옛날부터 왜적의 침략을 막는 남해안 최전선이 바로 여기였음을 알려주는 증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적의 전략기지 선진리성

지금부터는 선진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성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산성, 혹은 읍성이라 하고 어떤 것은 왜성이라 하고 이름이 각각 다르지요.

읍성이나 산성은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은 성이라면, 왜성은 왜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신들의 진지로 구축해 쌓은 성입니다. 예전에는 선진리왜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사실 선진리성은 고려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 흙으로 쌓은 토성이 있었는데 그 바탕에 왜성을 쌓아 올린 거지요. 왜적들에게 점령된 곳으로는 사천읍성도 있는데 왜 선진리에 성을 쌓았을까요?

일본 본토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내륙에 있는 사천읍성보다 바닷가에 있는 선진리성이 훨씬 좋



선진리성

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적들은 사천읍성을 옛 구(舊)자를 써서 사천구성이라 하고 자기네들이 쌓은 선진리성을 새 신(新)자를 써서 사천신성이라 했습니다. 완전 그네들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성과 왜성은 눈으로 봐도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각각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특징이 있다 해도 내용을 모르면 구분을 하는 게 어렵겠지요.

먼저 일본 성은 7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일본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쌓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요. 반면에 우리 성은 성벽이 거의 직각입니다. 또 우리 성이 한 겹이라면 일본 성은 겹겹으로 성 안에 성이 있고 또 성이 있는 식입니다.

요즘은 어렵지 않게 외국으로 여행도 가고 그리 짧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문화재가 규모면에서 우리 것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일본 성이 규모는 대단하지만 그 성을 쌓느라고 얼마나 많은 백성

들이 고생을 하고 피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해 보면 마냥 부러워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안목을 우리나라 문화재를 공부하면서 배운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선진리성 벚꽃놀이의 배경은 일본?

일제강점기 일제는 우리 문화재를 엄청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선진리성은 1936년 5월 고적 제81호로 지정하여 보호를 했어요. 우리 문화재를 망가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일본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왜군이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크게 이긴 승전지였기 때문입니다. 선진리성 전투는 조선 정기룡 장군과 명나라 동일원 장군이 함께 나선 4만명의 조명연합군이 시

마즈 요시히로 장군이 이끄는 7000명밖에 안 되는 왜군에게 참패한 전투거든요.

지금 선진리성에서는 봄철마다 벚꽃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활짝 핀 꽃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그 사연을 들여다보면 슬프기 짝이 없어요. 선진리성 전투의 승자 시마즈 요시히로의 후손들이 1918년 이곳을 공원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천신채전첩지’라고 새긴 빗돌까지 세우고 자기네 조상을 기렸어요. 빗돌은 해방되고 나서 주민들이 깨어 없었고 지금은 그 자리에 6·25전쟁 도중 숨진 공군 장병을 위로하는 충령비가 세워져 있어요. 가까이에는 1978년 세운 이충무공사천해전승첩비도 있습니다.

2007년 선진리성을 복원하면서 앞선 시기에 쌓

았던 토성이 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새로 지어 깔끔한 것도 좋지만 옛날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데 아쉽지요.

빗돌을 없앤다고 아픈 역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일제의 흔적을 지우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것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남겨두어 흔적을 찾고 기억을 새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훌륭한 문화재가 된다는 것까지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벚꽃 구경을 할 때 이런 역사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지요.

치욕스러운 선진리성 전투의 패배

1598년 9월 28일 조명연합군은 한밤중에 사천읍성을 기습탈환하고 10월 1일 곧바로 선진리성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사천읍성을 탈환할 때 앞장서 활약한 장군이 바로 당시 경상우도병마절도사였던 정기룡입니다. 정기룡 장군은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나 임진왜란 7년 동안 60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였어요. 임진왜란 첫해인 1592년에는 곤양을 지키는 장수이기도 했으니 사천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인물이지요.

이때 조명연합군은 4만이고 왜군은 7000명이었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질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사람들 심리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편이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무찌르면 당연해 보이는데 많은 수로 적은 적에게 패하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당시 주력이었던 명나라 군대는 까닭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군은 적은 숫자로 연합군 식량창고를 불태우고 지뢰를 묻으면서 연합군이 지

조명군총



치는 틈을 타 복병으로 대열을 끊어교란을 시켰 습니다.

그 와중에 명나라 군대에 폭약상자가 터지는 사고까지 겹치게 되니 결국 조명연합군은 엄청난 사상자를 남기고 대패하고 말았지요. 이때 숨진 병사를 <선조실록>은 7000~8000명, 일본은 3만 8000명을 웃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조명군총의 비극

선진리성 전투 패전의 쓰라린 흔적은 선진리왜 성 근처에 ‘조명군총’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명군총은 선진리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과 명나라 병사들의 무덤입니다. ‘조명군총’ 하면 이름만으로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총과 능은 모두

다 무덤을 뜻하는 한자랍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경주에 있는 신라 임금의 무덤을무열왕릉, 선덕왕릉 이렇게 왕릉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무덤의주인을 정확하게 알면 ‘능’이라 합니다. 그런데 무덤의 주인을모를 때는 고구려의 춤추는 그림이 있는 무덤 무용총처럼 ‘총’이라 합니다. 구분을 하는 기준이 대체로 이렇구나 생각하면맞아요.

다시 조명군총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선진리성 전투에서 승리한 왜군은 조선과 명나라 군사들 시신에서 귀와 코를 잘라 일본에 전리품으로 보냈습니다.

귀와 코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았던 교토의 도요쿠니신사 근처에 묻혀 이총(耳塚:귀무덤)이 되었지요. 커다란 왕릉처럼 보이기도 하는 조명군총

옆에는 자그마한 이충도 있습니다. 1992년 사천문화원 등이 일본 교토에 있는 이충에서 흙을 떼어와 여기에 안치하고 표지판을 세운 자리입니다.

낮선 이국땅에 와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죽은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명나라 병사들의 영혼은 무죄입니다. 그들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전쟁이라는 게 원래 높은 자리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일으키고 그 피해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조명군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아요. 전쟁은 이기든 지든 무조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나라가 아무 조건 없이 조선을 도왔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지요. 파병 조건으로 조선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겪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의 행패도 극심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최종 목표는 대륙 진출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네 땅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방어를 한 셈입니다. 그리고도 마치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온갖생색은 다 냈던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그때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 통일을 하

거나 전쟁을 한다면 그 나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해요. 400년 전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의 처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조명군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지다

이제 선진리성 전투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선진리성 전투는 임진왜란 막바지에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는(1598년 8월 18일) 바람에 왜군은 싸울 뜻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 와중에 선진리성에서 조명연합군이 참패를 했던 거지요.

싸움에서 이겨 잔뜩 기세가 오른 사천 왜군은 이순신 장군이 포위하고 있던 전남 순천의 왜군을 구출하려고 11월 18일 밤 남해와 하동 사이 좁은 해협 노량으로 나아갑니다. 남해와 고성, 그리고 진해와 부산에 있던 왜군도 함께 집결을 하지요.

이에 맞서 순천왜성을 포위하고 있던 조명연합수군도 역시 노량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병사 6만 남짓에 전선 500척가량으로 우리보다 훨씬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수군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하는 노량해전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로써 길고도 험난했던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노량해전이 바로 전에 있었던 선진리성 전투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때요, 따로따로 들여다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만약 선진리성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사천에 남은 왜적들은 싸울 뜻을 잃고 순천 왜군을 구하려갈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렇다면 이 순신 장군도 그렇게 전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역사이지요.





소나무와 차로 유명한 다솔사

사천에는 다솔사라는 멋진 절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다솔사 들머리에는 잘 자란 아름드리 소나무가 상큼한 솔향을 내뿜으며 늘어서 있어 길을 걷는 즐거움을 선사해줍니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오른편에 바위가 있는데 '어금혈봉표 광서 11년 을유 9월 일(御禁穴封表 光緒十一年 乙酉 九月 日)'이라고 한자가 새겨져 있어요. 알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광서 11년은 글자를 새긴 시기인데 1885년 조선고종 임금 때입니다. '임금(御)이 무덤(穴封)을 쓰지 말라(禁)고 했다는 표지(表)'라는 뜻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덤을 좋은 곳에 쓰려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좋은 자리에 무덤을 써야 후손들이 잘된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다솔사가 그만큼 좋은 자리라는 의미기도 합니다. 덕분에 다솔사 경내 소나무가 다치지 않고 오늘날 멋진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간혹 교회를 다닌다며 절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은 단지 종교적인 장소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그 속에 새겨진 정신세계도 엿볼 수 있고 탑, 불상, 건물들을 통해 옛사람들의 숨씨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역사를 더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절을 알면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지요. 우리나라 여행을 하다 보면 대체로 아름답고 멋진 곳에는 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을 제대로 알

면 그만큼 안목이나 생각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절인 것도 절간에서 한국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라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여행 가면 이런저런 유명한 성당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살피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요.

다솔사에 담긴 정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솔사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크게 두 차례 침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앞에서 얘기한 430년 전 임진왜란이고 또 한 번은 지금부터 하게 될 110년 전의 일제강점기입니다.

다솔사는 한반도 남쪽 끝 사천에 있지만 당시

불교계 전체독립운동의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처럼 스님들의 활약이 뛰어났는데 일제강점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고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도 작성했던 만해 한용운(1879~1944년) 선생이 다솔사에 거처하면서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용운은 일제를 향해서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민족의 자존심으로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였어요. 다솔사의 안심료 앞마당에 있는 황금공작편백나무는 1939년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한용운 선생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심은 것이지요. 지금은 이 나무가 다솔사의 상징처럼 되었어요.

다솔사에 머물렀던 또 다른 유명한 사람으로



안심료 앞 황금공작편백

는 소설가 김동리(1913~1995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김동리는 일제강점기에 사천에 머물면서 민족교육운동을 벌이기도 한 분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소설가입니다.

1935년 등단하여 ‘무녀도’, ‘황토기’, ‘역마’에 이어 1961년에 쓴 대표작 ‘등신불’은 자기 몸을 불살라 부처님께 바치는 분신공양을 다룬 소설인

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지요.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은 다솔사에서 만해 한용운을 만난데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7년 가을 인가, 이듬해 봄인가. 만해 한용운이 다솔사에 왔었다. 나는 10리 남짓 떨어진 원전마을 광명학원에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다. 다솔사에서 차를 마실 때 만해가 무슨 얘기 끝에 ‘우리나라 승려 중에서 분신공양한 분이 있소?’ 하고 물었다.”

김동리는 ‘분신공양’이란 말을 이 때 처음 듣고 아래턱이 달달 떨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는 인물들이지만 이 다음에 한용운과 김동리를 배우게 되면 아하~ 다솔사 그분들 하면서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겠지요.

사천의 빛나는 인물 최범술

만해 한용운 선생과 소설가 김동리 덕분에 다솔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용운과 김동리가 어떻게 해서 한반도 남쪽 골짜기 외진 다솔사에 머물며 민족운동을 벌이고 ‘등신불’을 쓸 수 있었을까요? 당시 다솔사에 사천 출신 스님 최범술(법명 효당 1904~79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범술은 불교계 항일 비밀 조직인 만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만당을 대표하는 당수로 만해 한용운을 추대한 인물입니다. 또 민족교육을 위하여 사천에 광명학원을 설립하였는데 그런 인연으로 김동리가 여기에 선생님으로 와 있었던 거지요.

이런 최범술이 잊혀져 간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정직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실제보다 크게, 어떤 것은 실제만큼, 또 어떤 것은 실제보다 작게 드러나거나 평가되기도 하지요. 사천에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선 선불교 중흥의 주역 부용영관선사

사천 출신 스님으로 조선 시대에는 부용영관선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불교가 유교에 눌려 가장 심하게 배척당하던 조선 초기 스님인데요, 조선 성종 때인 1485년 태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0년 전인 157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용영관선사는 우리나라 선불교의 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가~ 다들 그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전국 곳곳에서 승병을 일으킨 불교의 총대장이었던 서산대사의 스승이었다고 하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부용영관선사는 삼천포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고 천한 집안이어서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훌륭한 인물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인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부용영관선사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바다에서 잡아 온 물고기를 몰래 풀어 주어서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지요. “사람이나 미물이나 목숨이 가까운 것은 마찬가지이고 물고기도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가난한 처지에 배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산대사가 스승인 부용영관선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많지는 않아서 아쉬워요.

두 임금의 태가 묻힌 명당의 땅 사천

사천에는 예로부터 명당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조선 왕조가 사천 땅을 태실로 삼았다는 데서도 확인이 되지요. 태아를 둘러싸는 태반과 탯줄이 태입니다. 태실은 그런 태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조선 왕실은 이를 인체의 근본으로 여겨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면 그 태를 명당에 묻었다고 해요.

곤명면 은사리에 세종대왕태실지와 단종태실지가 있습니다. 세종대왕태실은 세종이 임금 자리에 오를 때 사천으로 왔지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수난을 당합니다. 왜적에게 크게 파손이 되는 바람에 1601년에 크게 고쳤습니다.

1929년, 일제의 강요로 왕실이 두 태실의 토지를 팔고 말았습니다. 지금 두 태실지에는 빗돌과 석재만 일부 남아 있지요. 어쨌든 왕자·공주도 아니고

임금의 태실이 두 군데나 있었다니 사천 땅이 명당이라는 건 증거가 된 셈입니다.

“와룡, 고려 현종을 품다”

2023년 올해 열렸던 사천와룡문화제에 가보았는지요? ‘와룡, 고려 현종을 품다’라는 축제 문구도 보았는지요? 고려 현종 콘텐츠를 품은 와룡문화제라고요. 우리 지역 사천과 고려 현종의 인연을 문화로 이어 간다는 건데요.

고려 현종은 어떤 왕이었냐고요? 역사는 고려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한 왕이 현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세종’이라 불릴 정도로 덕이 있었던 왕이었답니다.

현종은 19살에 왕이 되었는데요, 초반부터 거란

40만 대군이 침입해 들어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거란을 몰아내고 오히려 고려의 번영을 이루게 된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강감찬 장군이 이때 활약한 인물입니다.

현종은 왕이 된 후 사수현(縣)이었던 사천을 사주(泗州)로 높였대요. 당시 주(州)는 오늘날의 광역시도(예, 경상남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에 12개밖에 없었습니다. 현종이 왜 이렇게 사천에 대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고려 현종 부자상봉길

우리 사천에 ‘고려현종부자상봉길’이 있다는 건 알 테지요?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父)와 아들(子)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버지 왕욱과 아들 현종의 자취를 찾아

내어 연결한 길인데요, 현종이 살았던 배방사 절터, 아버지가 배방사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을 향해 돌아본 고개 고자치, 아버지 왕욱이 죽어서 묻힌 안종능이 있었던 자리, 그 길을 따라 걸어보는 길이 부자상봉길입니다. 안종능이 있던 그 산 이름이 능화봉인데요, 무덤을 뜻하는 한자 ‘능(陵)’을 넣어 지은 것이지요. 그 아래 마을은 능화마을이고요.



현종정

‘고자치’라는 장소의 한자 이름에서 ‘고(顧)’는 돌아본다는 뜻, ‘자(子)’는 아들, ‘치(峙)’는 고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돌아보는 고개’라는 말이지요. 여기 아들은 고려의 8대 임금 현종이고, 돌아보는 아버지는 고려 태조 왕건의 여덟째 아들 왕욱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먼 남쪽 땅끝 바닷가 사천까지 왔을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현종의 아버지 왕욱이 고려 5대 왕 경종의 왕비와 사랑에 빠져 낳은 아이가 현종이래요. 쉽게 말하면 숙부와 조카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 왕욱이 사천으로 귀양을 왔고요. 어린 현종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니 아버지가 있는 사천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배방사’라는 절에 보내고, 아버지는 고개 너머

에 있는 마을에 살게 해서, 둘이 함께 살지는 못하게 한 거지요.

어린 현종을 보러온 아버지가 돌아가는 길에 수도 없이 돌아보았을 고개가 ‘고자치’입니다.

용으로 돌아갈 사람이 사는 동네, 능화마을

현종이 다섯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고, 현종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있었대요.

“내가 죽거든 귀룡동(용으로 돌아갈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장사를 지내되 반드시 시신을 옆드리게 하여 장사지내라.” 귀룡동은 지금의 능화마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사를 지냈기 때문일까요? 갖은 위험 속에서도 아들은 1009

년에 고려 현종으로 왕위에 올랐답니다.

아버지 능이 있던 산봉우리를 ‘능화봉’이라 하고, 능묘가 있던 산등성이를 ‘꽃밭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용의 기운이 서린 능화봉의 꽃밭등에 고려 안종의 능묘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능화마을’이라 한답니다. 현종의 아버지는 왕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종이 왕이 된 후에 ‘안종’으로 높여 불렀대요. 왕이 묻힌 묘에 ‘능’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능화봉 아래 느티나무 숲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샘이 있습니다. 유배 당시 어린 현종이 이 샘물을 떠서 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해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먹였겠지요. 애뜻한 사연을 알고 샘물을 마셔보는 것도 좋겠지요. 더구나 이 샘물에 손을 씻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왕후는 죽은 경종의 왕비였는데 왕비의 재혼은 금지돼 있었어요.



현정왕후의 임신이 알려지자 아버지 왕욱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분명 위법입니다.

왕욱은 남쪽 땅끝 바닷가 사천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정왕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현종을 낳게 됩니다.



정문에 이르러 버드나무를 부여잡고 겨우 낳기는 했지만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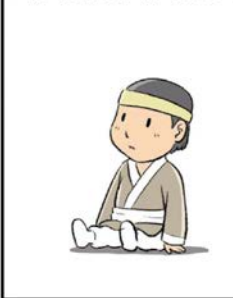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지..



가여워라..

아버지는 귀양을 가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현종은 태어나자마자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현종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는 내가 아니란다.



넌 보니 누나 현정왕후가 떠오르는구나.

성종은 현종을 사천에 있는 아버지 곁으로 보내게 되지요.



하지만 같이 살게 하지는 않았어요.

현종은 배방사에 살았고 아버지 왕욱은 고개 너머 성황당산 아래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기 위해 날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아들과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도없이 돌아보았을 고개가 고자치입니다.



아, 그래서 고자치구나!

하지만 현종이 다섯 살 때 아버지 왕욱이 죽으면서 부자가 함께하는 생활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왕욱은 현종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물릴 데를 정하는 지관에게 이금을 주고

귀릉동에 장사지내되 반드시 얹어서 묻도록 하여라



풍수지리에서 명당 자리에 얹어서 묻으면 자식이 임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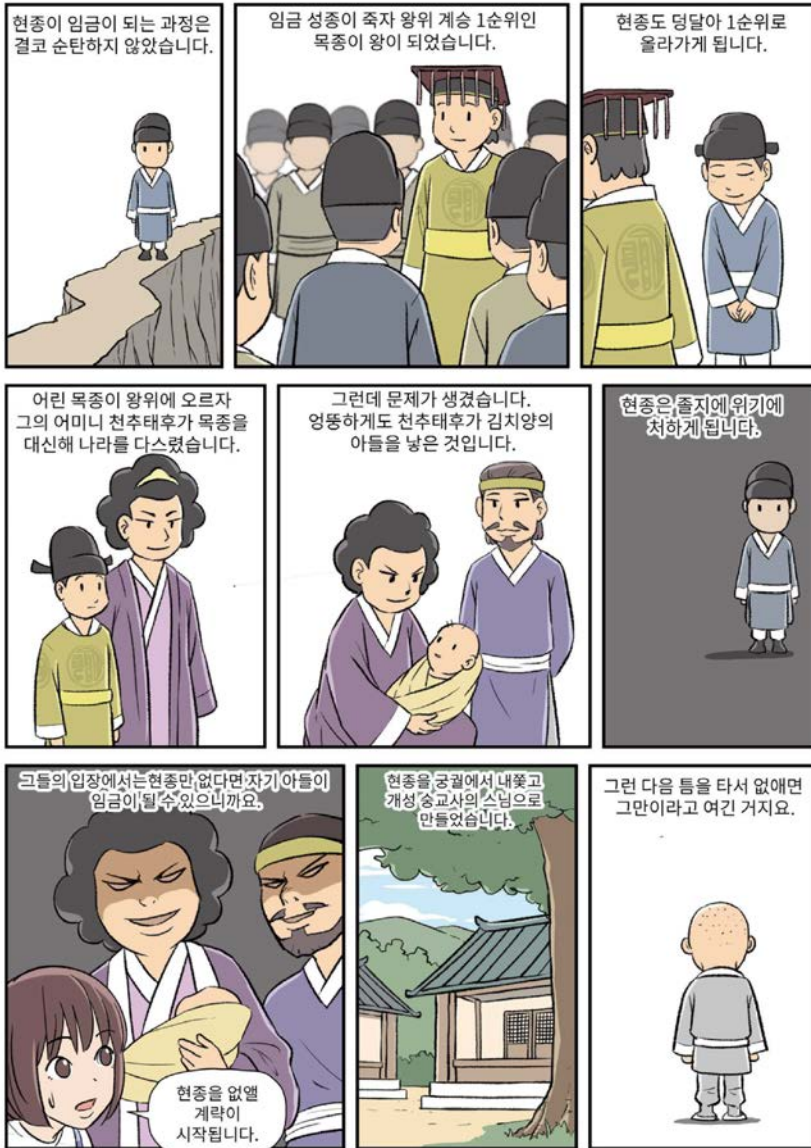
내 아들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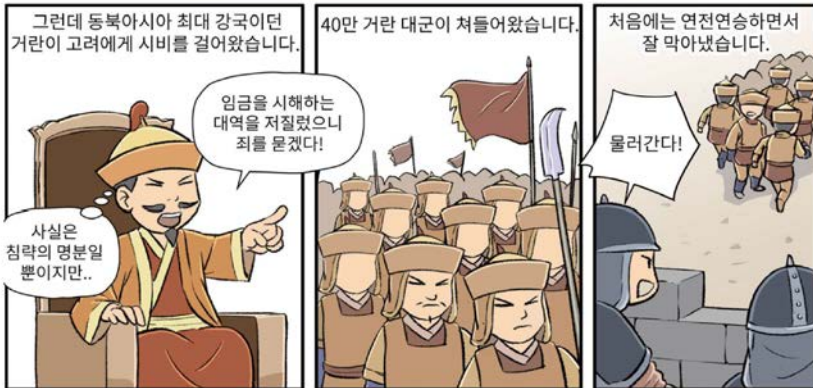
당시 왕위 계승 2순위였던 현종은 갖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훗날 실제로 임금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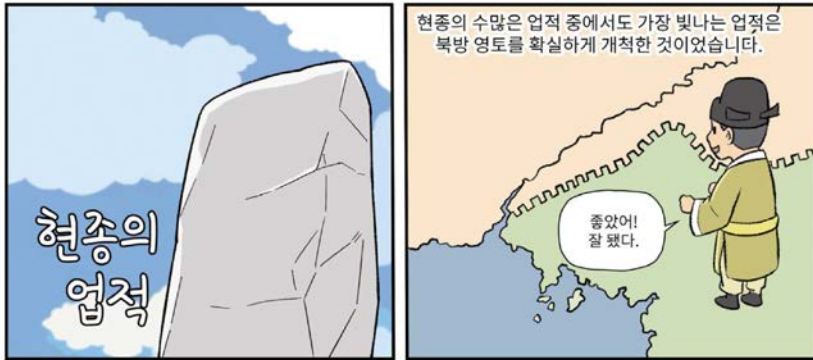


현종은 아버지가 묻혀 있고 자신을 임금이 되도록 만든 땅이라고 하여 사천을 아주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4장.
문화

사천만 갯벌

삼천포대교가 찾아낸 국제무역항 늑도

사천의 명물 창선·삼천포대교는 여러 섬을 이어서 만든 다리입니다. ‘늑도’는 이 가운데 하나의 섬이지요. 대교 공사 덕분에 늑도의 역사적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늑도에서 발굴된 유적은 조선 시대도 고려 시대도 아닌 기원전 1~2세기로 초기 철기시대니 어마어마한 옛날이지요. 그런데 규모까지 역대급이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초양도에서 연결된 늑도대교와 늑도



늑도 유적에서 도대체 어떤 유물이 나왔을까요? 낚싯바늘이나 칼, 낫, 작살, 향아리 같은 일상 생활 용품은 물론이고요. 중국 동전을 비롯해 낙랑, 중국, 왜(일본) 등 바다를 건너온 유물도 많이 나왔어요. 이처럼 다른 데서 들어온 유물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득한 옛날 늑도에서 국제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의사 소통을 했을까 궁금하지요. 온갖 손짓 발짓을 했을 것이고,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시끌벅적했을 것 같은 당시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들은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똑바로 눕혀 있기도 하고, 팔과 다리가 꺾여 있기도 하고, 엎어 놓기도 하고, 개를 함께 묻은 경



늑도유적에서 나온 개뼈 ©국립진주박물관

우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땅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제각각 풍습에 따라 묻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무덤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시공을 초월해서 먹고 사는 사람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으니깐요. 그리고 보면 우리

나라 다문화가정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요.

늑도에서 나온 유물 중에는 불에 탄 쌀이 있습니다. 원래 섬은 물이 모자라거든요. 쌀을 얻으려면 논이 있어야 하고 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풍부해야 하잖아요. 늑도는 지금도 논은 없고 밭만 조금 있는데 그 당기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쌀이 늑도 바깥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요.

불에 탄 쌀 한 알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2000년 전 옛날에는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은 뭐든지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옷감도 직접 생산했고, 물고기나 가축도 손수 잡거나 길렀어요. 집을 짓는 재료도 물론 스스로 구해야 했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식량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동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늑도 사람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쌀을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힘겨운 농사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전문가들은 바로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외부에서 쌀이 들어 왔다는 것은 먹고 남은 만큼 식량을 확보하고 공급할 능력을 갖춘 세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늑도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세력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는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다른 물품을 생산해 제공한 것이지요.

이것은 물물교환이나 자급자족을 지나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한 분야에만 종사하는 장인 집단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탄 쌀을 통해 이런 것까지 짐작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런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리를 내면서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만 발굴했기 때문에 유적지를 남겨둘 수 없었거든요. 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는 말은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6년에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늑도 유적 발굴 30주년 기념특별전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죽방렴, 지체로운 바다 사람들

지금부터는 창선·삼천포대교가 지나가는 갯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양식을 바다에서 구하게 됩니다. 땅에다 씨를 뿌려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친 바다에서 양식을 구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고



삼천포해협에서 볼 수 있는 죽방렴

달픈 일이지요.

창선·삼천포대교를 건너다보면 바다 가운데 뭔가가 들어서 있는 게 보입니다. 마치 다리를 떼어낸 마른오징어 같은 것들이 여럿 솟아 있는데 바로 죽방렴입니다.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대살이라 했지요.

죽방렴은 주로 멸치를 잡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

다. 죽방렴으로 잡은 멸치는 그물로 잡은 것보다 몇 배나 비싸요. 그물 멸치는 많이 부대껴서 상처가 많지만 죽방렴 멸치는 바닷물의 빠른 흐름을 활용해 거두기 때문에 상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죽방렴 멸치는 고급 선물로 인기 짱!입니다.

13척의 배로 대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명량대첩은 다들 알지요. 전라도 해남에 있는 좁은 해협 명량에서 빠른 해류를 활용하여 거둔 대승입니다. 거기 해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빠른 곳이 바로 삼천포해협과 지족해협입니다. 죽방렴은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물살이 빠른 삼천포와 지족에 죽방렴이 유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창선·삼천포대교를 건너다보면 밀물과 썰물이 서로 바뀔 때 물살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물살을 타고 이동하는 각종 물고기들이 짝 벌어진 죽방렴 아가리를 향하여 밀려듭니다.

지금은 쇠로 된 커다란 빔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물을 치지요. 하지만 옛날에는 대나무로 만든 받을 성글게 치고 그물은 죽방렴 바깥에다 둘렀답니다. 이런 지혜가 바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는 거지요.

남해에는 돌로 쌓은 석방렴(독살)도 있습니다. 석방렴은 돌로 둥글게 독을 쌓아 고기를 잡는 방식을 말합니다. 밀물 때 들어온 고기가 썰물 때 독안에 갇히게 되면 손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답니다. 석방렴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사천만 갯벌

갯벌에 어린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하면서 사천은 경남에서 가장 갯벌이 너른, 갯벌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사천은 갯벌과 관련된 사람사는 이야기도 아주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리산을 탐방하는 출발점이 사천 앞바다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헛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천만 갯벌하고 지리산 등산 출발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을 테니까요.

지금 보면 사천만 바다는 갯벌이 넓어 어지간한 배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얇은 곳이 많습니다. 항구로 적당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밀물 때 배가 들어옵니다. 물에 떠 있던 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썰물이 되면 물이 빠지니까 갯벌 위에 정착하게 되겠지요.

따로 부두를 만들지 않아도 갯벌이 자연적인 선착장이 되어줍니다. 다시 밀물이 들면 배를 띄우는 거지요. 밀바닥이 뽕족하고 모터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요즘 배를 두고 보면 수상하기 짝이 없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옛날 배는 바닥이 평평했고 프로펠러로 돌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가능했답니다.

지리산 유람의 출발지 사천

460년 전인 1558년 4월 8일, 당대에 내로라 하는 여러 선비들이 사천 쾌재정에 모여들었습니다. 쾌재정은 지금 두원중공업 가까운 축동면 구호리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구암 이정 선생과 남명 조식 선생을 비롯한 경남의 이름난 선비와 벼슬아치들이 지리산 유람을 떠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같으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왜 가능했는지 위에서 설명을 했지요.

배는 쾌재정 앞 갯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곤양 앞바다를 지나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 하동·약양을 거쳐 화개에 도착을 합니다. 일행들은 여기서 내려 지리산 자락 쌍계사로 들어갔답니다.

조선 선비들이 지리산 유람에 나섰던 그 뱃길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아마도 최고의 관광코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쾌재정은 흔적만 남아 있고 그 앞으로 증선포천이 흐르지만 배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섬진강도 수량이 줄어들어 배를 타고 오르내리기는 어렵지요.

사천의 대표 선비 구암 이정

남명 조식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과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대단한 유학자였습니다. 홍의장군으로 유명한 곽재우 의병장도 그의 제자였어요.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지요. 구암 이정 선생은 사천 출신이었는데 남명보다 나이가 열 살 넘게 아래였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벗으로 삼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역사에 남을 만큼 훌륭한 인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총기가 있어 공부를 잘했고, 장원급제를 하고, 높은 벼슬을 두루 거치면서 선정을 베풀고, 거기에 더해 효성이 지극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암 이정도 이런 코스를 정석대로 잘 밟은 인물이었습니다. 24세에 장원급제를 하고 여러 벼슬을 하였습니다. 말년에 조정에서 홍문관 부제학 벼슬을 맡기면서 불렀지만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 돌아와 구암정사를 짓고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며 부모님을 모셨다는 점도 높이 살 만합니다.

이정 선생이 썼던 호인 구암에 얽힌 이야기도 재미있답니다. 호는 요즘으로 치면 별명인데, 옛날에는 자기가 사는 마을 이름을 허물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정 선생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사천읍 구암리가 이정 선생의

호가 되었답니다.

구암 이정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와 지역 선비들이 선생을 기리기 위해 1606년에 구산서원을 지었습니다. 서원은 스승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승의 제사도 지내고 스승의 뜻을 받들어 학문도 익히는 공간이지요. 나라에서 구계서원이라는 이름으로 현판을 내려 주면서 품격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구계서원은 지금도 구암 선생의 삶과 학문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답니다.

갯벌에 문화유적이 많은 까닭은?

조창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조창은 고려·조선 시대 세금으로거둔 곡식, 면포, 특산물을 한양으로 옮겨갈 때까지 보관했던 창고를 말합니다. 지금은

세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하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돈 대신 물건으로 거두었으니 보관하려면 커다란 창고가 그것도 여러 채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에는 물건을 육로로 수송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잘 뚫린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옛날에는 육로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뱃길을 통해 물건을 옮기는 것이 수월했지요. 그러다보니 조창은 당연하게 바닷가나 강가에 두었습니다.

사천만에는 조창이 여럿 있었는데 물론 같은 시기에 여러 조창이 한꺼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통양창은 고려 시대 조창이었고 가산창은 조선 영조 때(1760년) 설치가 되었어요.

조창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드문 조용한 시골보다는 사람이 많

이 모여드는 곳에서 아무래도 여러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요.

조창이 들어선 마을 풍경을 한 번 상상해볼까요? 물건을 실어나르는 사람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머무는 여관·식당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물건을 실은 배가 수없이 드나드는 항구에는 시끌벅적한 시장도 들어섰겠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이 살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남긴 흔적도 많기 마련입니다. 조창이 많았던 사천에 갯벌과 관련한 역사문화유적이 많은 까닭도 바로 그 때문이랍니다.

축동면 가산리에 가면 130년 전 1890년대까지 기능을 했던 옛적 가산창의 허물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춧돌과 축대가 두 군데 잘 남아 있지요.

창고 건물 같지는 않고 높은 관리들이 업무를 처리했을 관아 건물로 여겨집니다. 비록 옛날의 온전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나마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물건을 빼앗아가려고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대책이 있었어요. 앞서 40~41쪽에 나왔던 선진리(왜)성이 코앞에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군사들이 튼튼히 지켰답니다.

석장승이 있는 근처는 바다였다?

이야기는 가산리 석장승으로 이어집니다. 가산창이 있었던 가산리 마을 언덕배기와 당산나무 아래에는 남녀 신장이 두 쌍씩 서 있습니다. 보통은 남녀 한 쌍이 한 곳에서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색다르게 모

두 네 쌍이나 됩니다.

사천을 비롯한 인근 일곱 고을에서 거둔 조세 물품을 여기에 모았으니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한 쌍만으로는 부족해서 네 쌍으로 만든 건 아닐까 싶어요.

인간은 강한 존재이면서 또 나약한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처럼 장승도 똑같은 구실을 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배꼽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물건을 보관하고 실어 날랐던 조창에 장승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보관하던 물건을 도둑맞거나 항해를 하다 풍랑을 만나 물건을 잃으면 다 물어내야 했거든요. ‘거칠고 험한 뱃길에 무사하게 해주세요.’ ‘도둑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승 앞에서 그렇게 빌지 않았을까요.

석장승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합니다. 내륙에 있는 장승은 돌로 만든 것도 드물게 있지만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다 근처는 벽수라고도 하는 석장승이 대부분이지요.



가산리 석장승

사람들은 바닷바람에 나무가 잘 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보다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갯가에 있는 목장승은 수명이 길어야 2년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해를 걸러 장승을 만들어 세워야 했는데 문제는 만들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던 거지요. 기술자 부족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빌고 기원하는 존재는 무엇보다 신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 만큼 훌륭한 사람이 흔하지가 않았던 거지요.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나무로 만드는 목장승 대신 아예 석장승을 세우게 되었다는 슬프고도 웃긴 전설이 전해져 온답니다. 길을 가다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석장승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이 부근이 바다였으려니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매향과 함께 묻은 간절한 소망

조창 이야기도 하고 석장승 이야기도 했지만 사천 갯벌 유적에서 으뜸은 뒀니뒀니해도 사천매향 비입니다. 매향비는 갯벌에 향나무(香)를 묻고(埋) 그 사실을 글로 새겨서 세운 비석(碑)을 말합니다. 갯벌에다 향을 묻고 비석을 세우다니~ 이 정도 설명만으로는 고개를 갸웃하겠지요.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를 지낼 때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향나무는 태우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를 갯벌에 묻어 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어떤 꽃보다 더 향기로워진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절한 소원을 담아 향나무를 갯벌에 묻고 비석을 세우거나 바위벽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천매향비는 언제, 누가, 무슨 소원을 담아 세웠는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제부터 궁금증을 풀어나갑니다. 사천매향비의 처음은 “**많은 사람이 계를 모아 향을 묻으며 미륵불 왕생을 기원하는 글(千人結契埋香願王文)**”이라 되어 있고 끝에는 “**모두 4100(計四千一百)**”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4100명에 대한 비밀부터 들여다보기로 해요. 사천매향비가 발견된 지역은 옛적의 곤남군입니다. 1425년에 나온 <경상도지리지>에 곤남군 인구가 210호에 3062명으로 나옵니다.

매향비를 묻기 위해 금품을 내고 발품을 내고 조식을 내고 지식을 낸 사람들의 총합이 4100명이라는 뜻인데 그 숫자가한 고을 전체보다 더 많지

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소망을 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향비를 세운 1387년은 귀족과 토호의 횡포가 엄청났던 고려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갖고 있던 토지를 빼앗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노비로 신분이 떨어지기 일쑤였지요. 그것만으로도 살기가 힘든데 일본 왜구의 노략질까지 극심했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책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사천이 옛날 고려 말기에는 왜적이 침입하는 통로**”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딱 맞지요.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이 매향비에 담겨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륵불이란 석가모니불이 세상을 떠나고 56억 7000만 년 뒤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희망불이면서 미래불을 말하거든요. 이해가 잘 안되

면 대충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귀족·토호와 왜구에게 겹겹으로 시달렸던 백성들은 무슨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었을까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먼~~ 훗날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더없이 단순해 보이는 매향비를 통해 이런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요.

사천에는 매향 관련 유적이 또 있습니다. 매향 유적은 전국을 통틀어 8개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천은 두 개나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삼천포매향암각입니다. 비는 비석에 새긴 것이고 암각은 바위에 새겼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천포매향암각은 사천매향비처럼 빗돌을 따로

구하지 않고 삼천포 향포산 중턱 처녀바위를 골라 글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조선 초기인 1417년과 1418년 두 차례 수륙무차대회(떠도는 영혼들을 달래는 불교식 제사)를 치른 30명 정도가 향나무를 묻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천매향비



고기잡는 고달픔을 달래다~ 사천마도갈방아소리

농사를 짓는 농부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육체적인 고달픔을 잊기 위해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 노래를 노동요라고 하지요. ‘마도갈방아소리’는 전어잡이 어부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갈방아’에서 ‘갈’은 다 익지 않는 풋감의 즙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물을 만드는 소재가 튼튼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무명실에다 물감을 입혀 그물을 짰는데 갈이 바로 물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도에서는 풋감이 충분하지 않아 이웃 하동에서 사온 소나무 껍질로 갈을 대신했다고 해요. 한번 갈을 만들려면 소나무 껍질 서너 가마니가 필요했는데 절구통 하나에 남자어른 대여섯 명이 서너 시간 짤어야 했으

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힘들었겠다 싶지요. 이런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단함을 덜고 작업 능률을 올리려고 불렀던 어부들의 노래가 바로 ‘갈방아소리’랍니다.

사천마도갈방아소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갈을 방아 찧는 마당, 둘째는 갈을 삶아서 그물에 먹이는 마당, 셋째는 배에 고사 지내는 마당, 넷째는 바다에 나가 전어를 잡는 마당, 다섯째 풍어를 기뻐하는 마당으로 전어를 잡는 준비 작업부터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다 담고 있지요.

등장하는 인물도 아주 많습니다. 풍물패와 깃대잡이, 앞·뒤소리꾼, 선주 내외, 갈방아꾼과 갈을 푸는 아낙네, 무당·악사와 어부들까지 마당놀이 극으로 꾸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풍성하고 구성이 탄탄합니다.전어잡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무명 그물과 노 젓는 배가 점차 사라지고 잡는방법이 현대화되면서 더 이상 갈방아소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되살리려고 노력한 덕분에 ‘마도갈방아소리’는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라질 뻔한 귀한 노래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마도가 어디쯤에 있느냐고요? 삼천포와 남해 창선섬 사이 바다에 있는데 창선·삼천포대교가 지나가는 늑도에서 북서쪽으로 바라보이는 가장 큰 섬입니다.

한국 농악의 본보기 진주·삼천포농악

사천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사람이 한데 어울리는 민속 예술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군항과 어항으로 번성했던 삼천포와 너른 들판의 사천이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진주·삼천포농악입니다.

농악은 처음에는 주로 농사지을 때 울렸습니다. 정월대보름이나 추석 같은 명절과 마을 동제 같은 의식에서도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농악이 삼천포에만 있어서 유명하다고요? 물론 아니지요. 농악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삼천포농악이 특별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농악 하면 흰 바지와 색깔 있는 저고리에 색띠를 두르고, 상모를 머리에 쓴 채 연

주하는 모습이 떠오르지요. 농악은 원래 다 그런 모습으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작이 진주·삼천포농악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지요.

다른 지역보다 20년 앞선 1966년 6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이런 특별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와 묘기가 뛰어나고, 움직임이 화려하며, 힘차고 남성적이면서도 다채롭고 흥겨운 게 장점이지요. 이런 문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사천에는 많습니다.



진주·삼천포농악

가산창이 낳은 민속놀이 가산오광대

유명한 민속놀이로 가산오광대도 있습니다. 가산은 조세 창고인 가산창이 있었던 곳입니다. 조세 창고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사람이 많으면 에너지도 왕성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서울을 봐도 문화공연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마당극에서 춤을 출 때 탈을 뒤집어쓰는 오광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힘센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탈을 뒤집어쓰고 평소 불만이 많았던 양반들을 빗대서 놀려먹었던 거지요.

가산에서 오광대 공연이 펼쳐지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겠지요. 달빛이 흰한 밤에 덩 덩 덩더 쿵~ 울려 퍼지는 농악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가산오광대 말뚝이, 영감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흥겨워합니다.

출연자들이 탈을 뒤집어쓰고 춤을 추면서 대사를 읊습니다. 사람들은 광대들이 대사를 읊을 때 추임새를 해가며 박장대소를 합니다. 이쯤 되면 출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연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산에서 행해지는 오광대는 다른 오광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방신

장의 춤사위가 남아 있다는것, 할미가 아닌 영감이 죽는다는 것, 다른 오광대에서는 한둘만 등장하는 문둥이가 다섯씩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뭘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그런 모양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당극을 일컫는 이름이 낙동강 동쪽에서는 야류(들놀이), 서쪽에서는 오광대였습니다. 제각각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오광대나 야류는 다 같은 것이지요.

별주부전의 설화를 품은 비토섬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별주부전은 자라와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별은 한자로 자라를 뜻하고 주부는 용궁에서 자라가 맡았던 벼슬입니다.

용왕이 자라에게 토끼간을 가져오라 명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우여곡절이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고대소설로는 <별주부전>으로, 판소리로는 <수궁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광포만이 바다로 이어지는 자리 비토섬이 <별주부전>설화의 탄생지라니 참 재미있지요. 비토는 ‘나는 토끼’라는 뜻입니다. 토끼가 날아 다닌다니~ 어쨌든 비토섬에 어떤 전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비토섬에는 월등도, 거북섬, 목섬, 굴섬, 작은굴섬, 별학도, 까치섬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월등도는 달이 떠오른 섬으로 자라의 꼬임에 속아 용궁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토끼가 죽게 되는 곳입니다. 왜 죽었냐구요? 바다위에 어린 달빛 그림자를 육지로 잘못 알고 뛰어내리다 그만 죽었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 자

리가 토끼섬이 되었답니다.

토끼 아내는 남편 토끼를 기다리다 목이 빠져 죽었는데 그 자리가 목섬입니다. 임무 수행에 실패한 자라도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옆에 거북섬으로 남았다는 슬픈 사연입니다. 전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별주부전> 탄생지는 비토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의 바닷가도 <별주부전> 탄생지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로써 충분한 일이겠지요.

비토해양낚시공원이 자리 잡은 별학도는 자라와 두루미가 등장하고 까치섬도 있습니다. <별주부전>에 없는 동물까지 한자리에 모아 놓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비토섬이 진흙 갯벌로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면 하루 두 번 길이 열리는 월등도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섬입니다. 진흙이 적고 모래·자갈·바위가 알맞게 섞여 있어 조개·고둥·게·쏙·따개비와 어린 물고기 등을 만지고 놀기에 딱입니다. 주변에 캠핑장과 놀이시설을 갖춘 별주부전테마파크와 비토해양낚시공원이 있어 가족나들이에 안성맞춤입니다.

〈별주부전〉 탄생지에 걸맞게 사천은 판소리 〈수궁가〉가 전승되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금으로 치자면 사람들의 감정을 잘 표현한 대중가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유네스코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원래는 열두 마당이었지만 지금 전해지는 것은 수궁가를 비롯하여 춘향가·심청가·적벽가·흥



월등도의 갯벌

보가 등 다섯 마당입니다. 사천에 수궁가가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국악인 선동옥 명창의 활약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금은 사천판소리비토수궁가 보존회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니 명맥이 오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교의 전통을 잇는 사천향교·곤양향교

향교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요. 일단 향교가 무엇이었을 하던 곳 인지를 알면 그 다음은 술술 풀리게 됩니다. 향교는 지금의 공립 중·고등학교이고, 서원은 사립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향교 건물을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는 공부만 하지만 옛날 학교는 제사도 지냈으니까요.

학교에서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것은 시대에 따라 배움의 내용이 다른 까닭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다양해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것들을 배우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훌륭한 분들을 본받고 모시는 것이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사립 학교는 여러 군데 지을 수 있었지만 공립 학교는 지역마다 한 개만 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천에는 사천향교와 곤양향교 두 개가 있습니다. 사천과 곤양이 지금처럼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고 서로 다른 행정 단위로 독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 별도로 곤양향교와 사천향교를 두었던 것이지요.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 개편으로 통합되면서 향교가 두 개가 됩니다. 향교 숫자를 통해 행정구역의 변천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재밌지요.

향교와 서원에서는 훌륭한 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향교는 누구를 모시고 서원은 누구를 모셨을까요? 공립인 향교에서는 공자나 그의 제자들, 국가적으로 유명한 최치원·안향처럼 모시는 분이 고정돼 있었지만 사립인 서원은 세운 사람이 받들고 싶은 분들을 모셨

습니다. 그야말로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박재삼 시인과 박재삼문학관

사천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시인 박재삼(1933~1997년)입니다.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표현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 문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박재삼 시인은 일본에서 태어나 4살 때 어머니의 고향인 사천으로 가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생선을 두메산골까지 머리에 이고 돌아다니면서 팔았고, 아버지는 부두에서 지게를 지고 날뎠을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박재삼은 삼천포초등학교는 겨우 졸업했지만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신 삼천포여자중학교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했고 이듬해에야 삼천포중학교에 그것도 야간부에 입학할 수 있었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의 세월이었습니다.

소년 박재삼은 어려운 환경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빌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껴 써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야간부 전교 1등을 했고 1949년 야간부가 폐지되자 학비 면제를 받으면서 주간부로 옮길 수 있었지요. 1951년 삼천포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해 1953년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박재삼은 이 시기에 제1회 영남예술제에서 시조가 차상에 뽑히는 등 이미 뛰어난 시인의 자질을

을 보여줍니다. 삶의 애환을민족의 고유 정서인 한으로 승화시켜 아름다운 시를 창작했습니다. 낯선 외래어나 뜻 모르는 어려운 말로 잘난 척하지 않고 쉬운 우리말을 다듬어 쓸 줄 알았지요.

어릴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어른들은 종종 합니다. 그의 시에는 묵묵히 감당했던 고단한 삶이 녹아들어 감동을 자아냅니다. 시는 아무리 글재주가 있어도 아픔이 없으면 쓸 수 없는 장르라고 하지요. 어려운 환경과 뛰어난 글재주가 합쳐져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박재삼 시인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여 15권의 시집과 10권의 수필집을 남겼습니다. 노산공원에 자리 잡은 박재삼문학관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게 된 동기, 낙천적이고 소박하면서 욕심

없고 정많은 성품과 폭넓은 인간관계 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시인의 시집 한 권 정도는 책상에 두어도 좋겠지요.



<고향바다 물살을 보며>

박재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다 물살은
 고향앞 바닷가에서
 육지에 임박해 와서는
 살짜기 부서지는
 그 짓을 오늘토록 쉬임없이
 한 곡조 속에 다스려 왔건만
 지금도 즐기치게 같은 몸짓으로
 영원에게만 대고 하는 소리를 내네.

그러나 나는 돌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턱대고 사랑하는 감정만 부어
 이제 와 보면 그것이
 변덕스럽고 부끄럽기만 하고나.



5장.
오늘의 사천

창선·삼천포대교와 사천바다케이블카

오감만족형 전문 과학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산업축전’으로 2004년에 시작된 사천에어쇼는 해마다 가을이면 멋지게 펼쳐집니다. 중부권에 서울아텍스가 있다면 남부권에는 사천에어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은 인기가 최고지요.

우주항공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유일한 우주항공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랑하고 널리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항공산업과 우주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체험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은 항공우주의 역사와 과학에 대한 학습은 물론이고 비행시스템과

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감만족형 전문 과학관입니다.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기획전시실과 4D영상관·가상현실(VR) 체험시설·야외 전시장 등 하루종일 놀아도 지겹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학관 건물은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스며들도록 되어 있는 내부 중앙전시홀 공중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의 모형이 걸려 있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요.

비행사 체험은 물론이고 이륙에서 착륙까지의 여정도 체험 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T-50 고등훈련기 블랙이글 비행 시뮬레이터는 공군 조종사에도 전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해요.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서의 일상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실물을 볼 수 있는 사천항공우주박물관

사천항공우주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 우주 관련 박물관입니다. 실물 비행기를 전시하고 있지요. 박물관을 찾으면 야외 전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실제 하늘을 날았던 비행기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사천에서 제작된 제1호 국산 항공기 ‘부활호’와 다용도 헬기, 1960년대 대통령 전용기와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촬영에 쓰인 비행기, 대형 수송기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은 비행기들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거기에다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그 리얼함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시관에는 비행의 원리를 새의 날갯짓과 비교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비차와 부활호의 모

형, 공군 퇴역 항공기, 초음속 국산 고등훈련기 등도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자유수호관은 이름에 걸맞게 6.25전쟁 당시의 유명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 흥미롭습니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이 사용했던 승용차, 그리고 김일성이 타고



사천항공우주박물관 야외전시장 ©사천시청

다녔고 세계에 3대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련제 리무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놀랍지요. 김일성이 모택동에게 군사 개입을 요청한 편지 사본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바로 옆에 있는 예비에이션센터는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이 운영하는 교육 기부 체험 학습관입니다. 한국 최초 여성 우주인 이소연의 우주 생활을 담은 영상도 볼 수 있고 우주복과 우주 식량 그리고 우주 디지털카메라 같은 전시물을 직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남해에서 으뜸가는 남일대해수욕장

남일대해수욕장은 사천의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바다와 갯벌이 넓은 사천에 해수욕장이 하나라니 좀 뜻밖이지요. 신라 말기 고운 최치원

선생이 이곳 해안의 절경과 기암괴석에 반해 ‘남녘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이라는 뜻으로 남일대라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 해수욕장이 여름 한 철만 북적이지요. 그런데 남일대 해수욕장은 계절에 관계 없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름에 걸맞게 주변 해안의 모래밭과 갯바위를 따라 잘 가꾼 산책로가 이어져 멋진 풍경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남일대의 명물은 뭐니뭐니해도 코끼리바위입니다. 왼쪽으로 600m가량 병풍처럼 솔숲이 펼쳐지고 그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조각을 한 듯 바다에 기다란 코를 늘어뜨리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코끼리를 닮았습니다.

코끼리바위는 둘레 어디서나 멈춰서서 바라봐

도 쉽게 눈에 담깁니다. 다른 지역 해안 절경은 대부분 배를 타고 나가거나 멀찌감치 떨어져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여기서는 썰물 때면 바로 옆에 가서 깎아지른 위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코와 몸통 사이는 천연동굴처럼 뚫려 있는데 그 사이는 하얀 모래알과 조개껍데기가 수북합니다. 그냥 주변을 산책하면서 즐겨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약간 심심하다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에코라인이지요. ‘윙’ 소리와 함께 몸이 공중에 붕 뜨면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눈에 담기는 멋진 풍경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요. 스릴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완전 강추합니다.





창선·삼천포대교, 사천의 명물이 되다

사천 명물 중 눈에 담기는 멋짐으로 치자면 창선·삼천포대교가 단연 으뜸입니다. 2003년 4월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되었을 때 다리를 구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밀려드는 관광버스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지요. 지금도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봄이면 언덕을 노랗게 물들이는 유채꽃과 붉은색 아치형 다리의 근사한 조화는 이제 창선·삼천포대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삼천포~모개도~초양도~늑도~창선섬(남해)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움도 선사하지만 사천과 남해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좁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큰 공사로 세운 다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 대교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걸어서 건너면 색다른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신비한 기분이 들지요. 달려드는 바람은 시원하고, 커다란 지붕처럼 드리워진 하늘은 손에 잡힐듯 가깝습니다.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두둥실 구름이 그림처럼 흘러갑니다.

네 개의 다리가 저마다 다른 공법으로 건설



되어 ‘교량 전시장’이라고도 하는 이 멋진 길이 2006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꼭 한 번 걸어보아야 사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천바다케이블카

이렇게 멋진 창선·삼천포대교에 즐거움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2018년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운영을 시작했어요. 삼천포에서 남해로 가는 길목에서 처음 만나는 섬 초양도에서 대방을 거쳐 각산 꼭대기까지 2.43km가 이어집니다.

초양에서 대방까지는 멋진 바다를 굽어볼 수 있고 대방에서 각산까지는 아름다운 산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수에도 해상케이블카가 있지만 바다만 구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바다도 보고 산도 볼 수 있어서 즐거움이 곱절로 커집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빛나는 이름을 얻은 삼천포해협 바다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선·삼천포대교, 그리고 사천의 역사와 문화를 품

은 각산을 두루두루 눈에 담을 수 있는 명물이 바로 이 케이블카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모두 45대입니다. 그중 바닥이 투명한 15대는 바다와 숲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볼 수 있어 아찔함과 짜릿함을 한꺼번에 안겨줍니다. 초속 22m 폭풍급 바람에도 끄떡 없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전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편리함은 기본입니다.

해양생물의 보고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사천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해양생물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대형 수족관입니다. 경남에서는 하나뿐인 전시 공간이지요. 아라마루

는 순우리말로써 아라는 ‘바다’를 뜻하고 마루는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았을까요?

규모도 엄청납니다. 1000종을 웃도는 희귀 어류가 살고 있는 수조의 규모가 4000t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제주·여수·서울롯데·고양일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라고 하니 일부러 먼 곳으로 구경을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층은 해저터널수조와 사천 깊은 바다, 매너티(인어)관, 극지대 어류관, 2층은 파충류(바다악어·아나콘다)관, 한국의 숲, 3층은 초대형 하마수조, 수달 놀이터와 영상터널로 꾸며져 있습니다. 헤엄치는 하마의 모습은 물론이고 비버, 물개, 물범, 앵무, 공룡의 후예 슈빌 등 우리나라에서 마주하기 어려운 동물들도 잔뜩 있습니다.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카피바라, 사막여우, 설가타거북 등 포유류 16종 600마리를 보유한 '아라마루 빌리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는데 이름도 낯선 동물들이 많군요. 동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가 많은 이곳이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무지개해안도로

사천이 경남 갯벌의 절반가량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갯벌을 따라 걷는 길은 어디나 대체로 나쁘지 않지만 사천은 아주 멋지답니다. 삼천포와 가까운 실안노을길이 그동안 유명했는데 이번에 함께할 곳은 사천 무지개 해안도로랍니다.

종포에서 대포에 이르는 갯가 길인데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언제 걸어도 좋지만 해 질 무렵 썰

물 때면 끝없이 펼쳐지는 붉디붉은 갯벌이 환상적이지요. 붉은 노을을 배경 삼아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여기가 우리 고장 사천이 맞나 싶을 겁니다. 이런 멋진 풍경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금문소공원 앞 갯벌



중간 즈음에 자리 잡은 금문소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놀기 좋은 자리입니다. 밀물 때는 부교위를 걸어서 바다 가까이로 들어갈 수 있고 썰물 때는 갯벌에 들어가 썰을 밟고 만질 수 있습니다. 멀리 들어가도 좋고 가까워서 게나 조개를 잡아도 그만입니다. 몸에 묻은 썰을 씻어낼 수 있는 수도 시설도 갖춰져 있으니 이만한 놀이공원도 없지요.

토요상설무대 프리포즈와 락페스티벌

삼천포대교공원에서는 ‘토요상설무대 프리포즈’가 펼쳐집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밤마다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신나는 무대가 열리지요. 해마다 2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 사천의 대표 공연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락, 트로트, 클래식, 국악 등 동서고금의 모든 장르는 물론이고 마당극이나 오페레타, 뮤지컬, 거기에다 시민 참여 무대에 마술쇼까지 더해진다니 놀랍습니다.

그중에도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국내외 밴드들을 초청하는 락페스티벌은 완전 인기 짱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이 되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경남 유일의 락뮤직 축제로 펼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사천미술관

삼천포대교공원에는 사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천미술관도 있습니다. 미술 하면 관심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끌어낸 것이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 체험전’과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 체험전’은 하루에 1000명을 웃도는 관람객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어요.

‘레플리카’가 뭐냐구요? 원작과 크기도 같고 질감과 색감도 그대로 구현하는 제작기법이지요.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다양한 시도가 훌륭해 보입니다. 지역 출신 작가들을 위한 전시회도 함께 한다고 하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도시의 미술관에 어울리게 ‘삼천포의 꿈’이라는 전시도 열었어요. 삼천포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꿈이 들어있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미술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전시를 열어서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집

**사천 우주항공산업,
우주를 꿈꾸다!**

사천은 우주항공산업의 요람

‘사천시’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나요? 삼천포 앞 청정바다의 수산물,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치,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신기한 사천 바다케이블카, 여름이면 찾아가 더위를 식히는 남일대해수욕장, 혹은 삼천포대교를 떠올렸나요? 사천 항공우주박물관과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떠올렸다고요?

사천시는 바다와 땅, 하늘길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땅이라고 한답니다. 갯벌이 넓은 땅에, 하늘을 배경으로 우주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 그 도시가 사천입니다. 경상남도에 유일하게 공항이 있는 도시라는 건 알고 있지요?

사천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요람’이라는 말은 사물이 처음 발생한 곳, 그 근

원이 되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천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처음 발생한 곳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남쪽 끝에 있는 사천이 어떻게 우주항공과 관련한 중심도시가 되었을까요?

사천은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지요? 갯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군요. 그런 지형의 특징은 항공기와 관련한 산업이 일어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를 만든 곳이 사천입니다. 2004년부터 해마다 ‘사천에어쇼’가 열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항공산업도시입니다. 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사천에 있으니까요.

항공우주박물관, KAI에비에이션센터에서는 실물 비행기를 실제로 보며 비행기의 역사와 활약을 관람하고, 거기다 우주 체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옆

에 있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서는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인간은 참 엉뚱한 상상을 할 때가 많지요. 그 엉뚱한 상상에서 비행을 생각해냈고, 과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비행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지요. 우리도 엉뚱한 상상을 하며 사천 우주항공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항공기의 역사를 쓰는 도시, 사천



국산1호 항공기 ‘부활호’ 사천 하늘을 날다

우리나라 항공기 역사, 특히 항공기를 만들고 개발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천에 사는 어린이들이니 잘 알겠지요? 바로 ‘부활호’랍니다.

부활호는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을 치르던 1953년 6월부터 사천공군기지에 있던 공군기술학교에서 만들기 시작했대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경비행기를 만들고자 한 거지요. 그해 7월에 전쟁을 끝냈으니 휴전하기 바로 전입니다. 우리 공군의 힘을 기르고자 순수하게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항공기의 역사는 경상남도 사천에서 개발되어 첫선을 보인 대한민국 최초, 그러니까 국산1호 항공기인 ‘부활호’부터 시작합니다.

1953년 10월에 사천비행장에서는 2인승 경비행기인 ‘부활호’가 힘차게 날아올랐답니다. 2시간 동안 사천의 하늘을 누볐다니 그 광경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전쟁이 끝난 참혹한 상황에 우리의 손으로, 그것도 6개월 만에 성공한 기술이니깐요.

비행기 이름이 왜 ‘부활호’냐고요? 첫 비행을 성공한 5개월 후인 1954년 4월 3일 이름을 짓고 알리는 비행을 했는데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직접 써서 알렸답니다. 참혹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 국민이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염원이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호 1007’, 이 이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국산1호 비행기라 거기서 ‘1’을 먼저 댄다고요, 1950년 전쟁 중에 다부동전투에서 최초로 전사한 조종사를 기리고자 했는데요, 그

조종사의 성이 ‘천’이라는 것과 행운의 숫자 ‘7’을 합하여 1007이 되었다네요. 이름 하나 짓는데도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활호가 사라졌다니요?

첫 비행 때 조종사와 함께 설계자가 부활호를 탔는데, 바로 이원복 공군 소령이었어요. 그 소령이 미 공군기술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1955년 4월에 돌아왔더니 부활호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깜짝 놀란 소령은 그 행방을 몰라 애가 탔겠지요. 주변에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의미 있는 비행기가 사라지다니요?

알고 보니, 부활호는 1955년까지 공군 훈련기로 사용하다가, 1956년에 대구에 있던 한국항공대학에 기증하여 1960년까지 그곳에서 연습기로 사용했습

니다. 그 사실을 다들 잘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게다가 한국항공대학이 그 뒤에 이사하고 그 자리에 경상공업고등학교가 들어섰어요. 그러자 부활호는 경상공고 창고에 옮겨져 사람들에게 잊혀졌더라고요.

퐁퐁 숨어있는 부활호를 찾을 길 없던 이원복 소령은 애가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2003년 신문에 ‘부활호를 찾습니다’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설계자였던 이원복 소령은 그동안 나이가 많이 들어 군대를 나온 때였지만 계속 부활호를 찾고 있었던 거지요.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경상공고에서 일했던 분이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학교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요. 그렇게 부활호는 2004년 다시 빛을 보게 됐답니다. 또 한 번 부활했다고 해야 하나요?

제작 후 50년을 더 넘긴 부활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으니 온전할 리 없겠지

요. 날개와 엔진을 비롯하여 중요한 부품이 사라지고 몸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답니다. ‘부활’이라는 글자와 뼈대가 남아 원형을 알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나 싶긴 하네요.

다시 부활하라!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비록 망가진 상태였지만 그 역사적인 비행기를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접한 공군에서는 부활호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복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바로 경상공고와 협의한 후 부활호를 다시 가져왔지요. 그리고 제81항공정비창의 전문가들로 복원팀을 꾸렸고요. 처음 부활호를 만들 때처럼 총 27명의 복원팀이 한팀이 되었답니다.

먼저, 남은 몸체의 녹을 다 제거한 후 X-레이를 촬

영했대요. 왜냐고요? 처음 만들 때의 설계도가 없었던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아 있는 몸체부터 수치를 재면서 거꾸로 부품의 크기나 두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도를 만들었답니다. 최초 설계자였던 이원복 소령이 도움을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중고시장까지 뒤졌으나 1953년 당시의 엔진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어디선가 손길이 뻗쳐온다지요? 비슷한 엔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엔진을 기증했답니다. 그제야 복원팀은 설계도에 따라 종이로 먼저 모형을 만들어 비행시험을 한 후, 본격적으로 부활호를 복원하기 시작했대요.

2004년 10월 22일, 복원된 부활호는 다시 대한민국 사천의 하늘을 날았답니다. 최초의 조종사와 설계자 두 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

렇게 부활호는 또 한 번 부활했습니다. 최초로 날았던 해로부터 51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부활호(위), 복원 후(아래) ©사천시청

문화재청에서는 200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맞춰 부활호를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니깐요. 현재 공군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이 부활호는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411호입니다.

사천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활호를 개량하여 복원했는데요, 전시용 1대를 포함하여 2대

구분	개량 제원	최초 제원	개량복원 부활호(2011)
날개폭	12.7m	12.7m	
동체길이	6.6m	6.6m	
높이(수평시)	3.05m	3.05m	
높이(정자자세)	2.07m	2.07m	
엔진	912ULS2	O-019-1	
최대마력	100HP	85HP	
최대속도	250km/h	180km/h	
순형속도	167km/h	145km/h	
자체무게	495kg	380kg	
연료탑재량	16gal	12gal	
연료소모량	4.9gal/h	6.5gal/h	

부활호 제원 비교 ©사천시청



부활호 비행사진 ©사천시청

를 제작했습니다. 이 개량 부활호는 2011년부터 사천 항공우주엑스포에서 에어쇼 축하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 야외전시장에는 2008년 5월 5일 실물 크기와 같은 크기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어요. 사천항공우주박물관에 가면 놓치지 말고 야외전시장에서 꼭 찾아보세요.

이러니 한국우주항공산업의 본사가 사천에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시작된 지역이 바로 사천이니깐요.

잠깐, 일제강점기 군용 비행기 격납고가 사천에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였을 때 사천에 일제가 군용 비행장 격납고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일제가 사천읍 수석리 일대에 군용 비행장을 건설했습니다. 비행기를 감추어두는 격납고도 함께 만들었고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걸 만들었냐고요?

일제는 1937년부터 중일전쟁을 치르고 1941년부터는 태평양전쟁을 치렀지요? 1939년에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군용 비행장을 사천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미 공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이 끌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지, 그리고 얼마나 다치고 죽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은 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되는 고통을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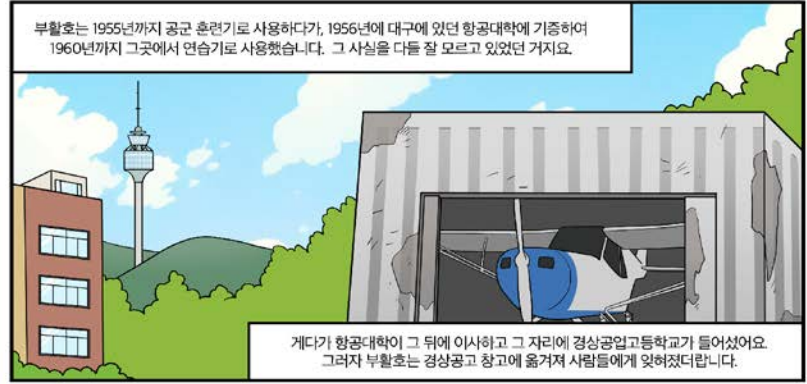
아냈던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터가 살벌한 전쟁터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겠지요.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하면서 일본군은 사천비행장에 전투용 항공기와 각종 군수물자를 버려둔 채 달아났습니다.



비행기 격납고

격납고는 원래 20개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논 가운데에 있는 격납고는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무덤 같아서 얼핏 고분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겉보기와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쪽은 넓고 아늑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난 도시가 우리 사천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큰 항공산업을 이루며 우주를 향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깐요.



그렇게 부활호는 2004년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50년을 더 넘긴 세월 동안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중고시장까지 뒤졌으나 1953년 당시의 엔진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어디선가 손길이 펼쳐온다지요? 비슷한 엔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엔진을 기증했답니다.



복원된 부활호는 2004년 10월 22일, 다시한번 사천의 하늘을 날았습니다. 최초로 날았던 해로부터 51년이 지난 해였답니다.



새처럼 창공을 날고자 했던 꿈, 전투기 만드는 기술까지



신화에서 날개는 하늘을 꿈꾸고

여러분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한 적이 있나요? 인간이 결국 그 꿈을 기술적으로 이루어냈지요. 비행기를 통해 공중을 자유롭게 다니고 우주까지 오르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인간이 품은 상상력은 대단하지요? 신화에서 그 끝도 없는 상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자, 그럼 신화 속에서 날고자 하는 소망은 어떻게 나타났을지 봅시다.

혹시 우리나라 건국신화 중에 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왕은 이상하게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알에서는 새가 깨어나지요. 그 새는 높이 날아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

겠지만, 이렇게 새처럼 날 수 있는 존재를 신성하게 여겼고, 그를 통해 안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농사를 지을 때는 사람의 땀과 노력에 더하여 하늘의 뜻이 있어야 풍년을 이룬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와 바람, 비, 눈 같은 기후를 하늘이 잘 맞춰주어야 하니까요.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신화는 그렇게 완성되는 거랍니다.

중국의 오래된 책을 보면, 사람과 새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좀 기괴하긴 하네요. 머리가 길고 몸에 날개가 난 사람들이 사는 나라, 사람의 얼굴에 날개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이들도 새라는 존재를 통해 하늘을 꿈꾸었던 것 아닐까요?

서양에서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가

있지요. 새의 깃털을 밀랍(양초의 원료로 쓰이는 물질)으로 붙이고 날개를 만들어 새처럼 날아서 미궁을 탈출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카로스는 너무도 높이 날아 태양 가까이 가는 바람에 밀랍이 녹아 추락해버리지요. 제우스신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어디든 다녔다네요.

이런 상상력이 오래 이야기되고 있었기에 비행기를 떠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상상의 힘은 무엇이든 도전하게 하니까요.

예술과 과학을 합체하여 하늘을 날고자 한 예술가들

서양에서는 신화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직접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여러분

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날개를 단 새처럼 날고자 하는 욕망을 키워 비행시험을 수없이 했다지요. 그렇게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동력을 이용하여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답니다. 1905년에 최초로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고요. 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날아오르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단순히 공중에 뜨는 비행기가 아니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요. 이때부터 비행기는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한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1505년경이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만능 천재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예술가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은 들

어봐서 알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이면서 건축가, 공학자, 생물학자 분야에도 활약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끊임없이 과학적 실험을 해보려 했답니다. 조명과 그림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고, 사람 몸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가 하늘을 나는 이치를 알면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의 날개 치기 방법으로 하늘을 날아보려 했대요. 그러나 새의 체중과 힘의 관계를 인간과 비교해보고, 인간의 몸으로 바로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대지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공기보다 가벼운 부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부력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려는 힘을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괜히 천재라고 하겠나요?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려는 것은 요

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방식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미 그때 그러고 있었네요.

다빈치가 날개를 그리고 300년쯤 지난 뒤, 프랑스 파리의 몽골피에 형제가 만든 비행 물체 ‘열기구’를 타고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방향 조절은 할 수 없었지만요. 열기구는 실제로 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열기구는 20분 정도 비행했다고 해요. 과학적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샤갈이라는 작가를 아는지요? 그는 그림을 “또 다른 세계로 날아가게 될 창”이라고 했대요. 「도시 위에서」라는 그림을 보면, 애인과 결혼한 후의 기쁨을 두 사람이 안고 마을 위를 새처럼 유유히 나는 장면으로 표현했어요. 공중에 뜨거나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기 내면의 완전한 상태를 보이려 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는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의 시나 소설을 많이 읽게 될 텐데요, 특히 이상의 소설 「날개」에서 새는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라고 하는데, 이 인공 날개가 돋았던 자국은 날아오를 수 있는 희망을 말해줍니다. 날개가 돌아나 그동안의 우울함을 벗어던지고 다시 날아오를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한 번만 더 날아보자는 절규는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는 비행기가 직접 등장하지요. 비행사였던 작가는 비행기를 섯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뿐 아니라 비행기와 자신을 하나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렇게 비행사는 영원한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조선시대에 하늘을 나는 비차(飛車)가 있었다고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건 모두 알겠지요. 이순신 장군, 김시민 장군, 홍의장군 이런 이름과 함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때 비행기와 같이 나는 기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았나요?

임진왜란(1592-1599) 중에 전라북도 김제에 살던 정평구라는 사람이 만든 기구라는데요,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발명이래요. 그 기구를 ‘비차’라고 하는군요. 한자를 풀이해보면, 날 ‘비(飛)’, 차 ‘차(車)’이니 ‘나는 차’로 보면 되겠네요.

이 비차는 진주성이 왜군에 포위됐을 때 사용했다는데요, 약 10미터 높이로 날아서 포위된 성으로 들어가 진주성의 성주를 태우고 30리 밖으로 날아

서 나왔대요.

조선시대 철종 때 학자가 쓴 글에 의하면, 비차에는 4명을 태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오기 모양이라니 실제 새의 모양을 보고 설계를 한 것 같지요? 그 비차는 배를 두드리면 바람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떠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회오리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너무 센 바람이 불면 추락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처럼 동력을 이용한 비행기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공기를 이용한 비행선 형태로 추정할 수 있는 최초의 기계였습니다.

그 시대에 참 대단한 발명이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바다에서는 거북선을 만들어 싸웠고, 하늘에서는 비행기와 같은 물체를 만들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세계 최초 비행기 발명국은 대한민국 아닌가요?

한국전쟁 중에 6개월 만에 부활호라는 비행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저력이 바로 이런 역사 속에 있었나 봐요. 설계를 잃어버려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새처럼 창공을 날고자 했던 꿈, 전투기 만드는 기술까지

사람도 새처럼 날 순 없을까?

여러분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한 적이 있나요? 인간이 결국 그 꿈을 기술적으로 이루어냈지요.

비행기를 통해 공중을 자유롭게 다니고 우주까지 오르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우리나라 건국신화 중에 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고구려를 세운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를 건국한 김수로왕은 이상하게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새처럼 날 수 있는 존재를 신성하게 여겼고, 그를 통해 안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곧 비가 오겠구먼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뜻에 신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오래된 책을 보면, 사람과 새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서양에서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가 있지요.

이 날개는 밀랍으로 만들었지!

제우스신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어디든 다녔다네요.

서양에서는 신화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 직접 비행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로 라이트형제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 동력을 이용한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답니다.

날았다!!

단순히 공중에 뜨는 비행기가 아니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요. 이때부터 비행기는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비행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한 최초의 사람은 이탈리아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렇게 파닥이면 날 수 있을지도 몰라

공기보다 가벼운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날개를 그리고 300년쯤 지난 뒤 프랑스 파리의 몽골피에 형제가 만든 비행 물체 '열기구'를 타고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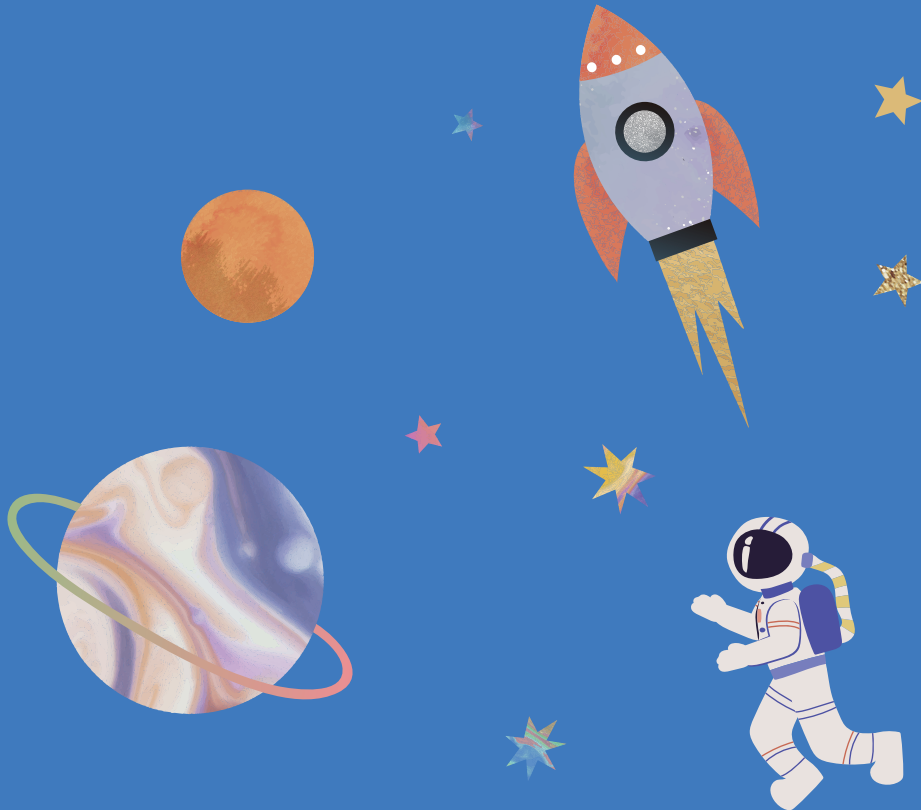
뽕뽕살~

쪽에는 이상의 소설 '날개'와 생략외베리의 '어린왕자'에서도 새와 비행기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임진왜란(1592-1599) 중에 전라북도 김제에 살던 정광구라는 사람이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선 발명이래요. 그 기구를 비자라고 한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천



항공산업이 뭐냐고요?

‘항공산업’이라는 말은 좀 어렵나요? 말 그대로 비행기와 관련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항공기를 만드는 일뿐 아니라 항공기를 정비하고 비행할 때 필요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일이니, 거대한 산업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중에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 있을까요? 요즘은 휴가 때나 연휴가 있을 때 해외 나가는 일이 쉬워졌지요?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제주도를 가거나 사천에서 서울 갈 일이 있을 때도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시기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요. 비행기 타는 일이 많아지니, 항공산업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답니다.

그 항공산업의 중심 도시가 사천시라는 건 알고

있나요? 우리 사천시는 공군기지가 있고, 경상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공항이 있는 도시지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삼성, 대우, 현대 이런 이름은 가전제품에서 보아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천의 항공산업에 뛰어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로 재탄생하여 차세대 항공을 이끌어가는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은 우리 기술로 우리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공기인 KT-1 훈련기는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터키, 페루 등에도 수출하고 있어요. 초음속 훈련기인 T-50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한 거랍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에어쇼에 한국산 프로펠러 기본훈련기 KT-1B ‘웅비’가 출격했다는군요.

그럼, 사천에서 어떻게 항공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항공산업의 사천시대는 KAI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999년에 창업하여 2019년에는 창사 20주년을 기념했네요. 20년을 넘게 이어온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에 KAI가 있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KAI가 뭐냐고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영어 이름 ‘Korea Aerospace Industries’의 첫 글자를 따서 KAI라고 합니다. 이제 그 역사로 들어가 볼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기동헬기, 송골매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왔습니다. 그리고 소형무장헬기와 KF-21이라는 한국형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름들이 어렵나요? 이렇게 사천에서 우주 사업을 확대해나가

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가슴 벅차지요?

198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가 군용항공기를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최적지로 사천공항 주변이 주목받았고요. 왜냐고요? 사천은 제3훈련비행단이 있는 곳이지요. 대한민국 공군의 훈련비행단인데 사천공항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보면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는 넓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갯벌이 엄청 넓기 때문이지요. 비행기가 뜨고 앉으려면 장애물 없는 넓은 땅이 필요한데 사천에는 갯벌이 넓으니 딱 알맞았던 거지요.

맨 먼저 삼성항공이 뛰어들었는데요, 1980년대 초에 항공기 엔진사업, 항공기 기체사업을 시작한 삼성항공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P(Korean Fighter Program)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 어렵나요? 거기에 마땅한 공장 땅을

찾던 중 사천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천에 삼성항공이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1997년에는 창원에 있는 항공기 공장을 사천으로 옮겨왔고요. 삼성항공의 사천공장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다음은 대우중공업이 사천에 들어온 과정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1986년부터 저속의 훈련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하고, 1988년 2월에 KT-1 ‘웅비(雄飛)’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대우중공업이 사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자 대우중공업 역시 창원에 있는 전문가들을 사천으로 오게 했습니다.

현대그룹 역시 우주항공 분야에 야심을 갖고 1994년 러시아 야크항공사와 공동으로 현대야크항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현대야크항공은 사업의 일부를 현대모비스로 넘기고, 대부분의 사업부를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소속시켰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때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 전 국민이 금 모으기 같은 것으로 힘을 모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군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 항공회사 세 곳, 그러니까 삼성, 대우, 현대가 통폐합을 했습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병을 한 것이지요. 1999년, 그렇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줄여서 KAI(카이)가 탄생했습니다. 본격적인 항공산업의 사천시대는 이렇게 KAI와 함께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투기 조립으로 비행기 국산화를 이룬다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게 된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항공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동체나 최종조립 그리고 시험 비행과 관련한 생산시설이나 기술자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미국 공군 수송기에 F-16D라는 항공기 2대를 부품인 상태로 사천공장에 들여왔습니다. 완성된 비행기가 아니라 부품인 상태로 들어왔다는 건, 그 부품으로 비행기 부품 전체를 조립하면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전투기를 조립할 수 있게 된 거지요. 우리의 손으로 최종 조립을 했고, 기능을 확인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비로소 1995년에 조립한 전투기는 비행에 성공했

어요. 항공기를 조립하는 기술을 완전히 익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조립도, 부품도 국산으로 만들 수 있는, 완전한 비행기 국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995년 11월 7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KFP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 제작된 최신예 전투기 KF16 Block 52의 출고식을 성대하게 치렀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고장 사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그렇게 되자 삼성항공과 대우중공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들의 협력업체도 자연스럽게 사천으로 옮겨 왔어요.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이런 간판이 크게 붙어있는 곳 본 적 있지요? 그곳이 바로 사천 항공산업이 싹튼 곳이며, 지금도 항공기 만드는 것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과 기술을 갖춘 곳입니다. 사천은 이렇게 우주항공산업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되다

2012년 6월, KAI는 한국형 기동헬기를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기간 6년 만에 성공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지요. 세계에서 11번째 헬기 개발국이 된 거랍니다. 그 이름은 KUH(Korean Utility Helicopter)-1 '수리온'입니다. KAI가 프랑스의 유로콥타 회사의 기술을 지원받아, 짧은 개발 기간에 우리의 헬기를 완성한 거지요.

수리온은 기존 헬기와 비교했을 때 작전 수행 능력이 우수하답니다. 한반도 지형을 고려하여 백두산 높이에서도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며, 우수한 조종성과 편리한 정비성을 고려한 헬기를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환경시험을 할 때는 영하 32도 이하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까지 가서 검증했답니다.

다. 알래스카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니
까요. 그곳에서도 121개의 시험 항목을 모두 검증
하였으니, 우수한 성능을 증명한 것이지요.

KUH 수리온 개발기술을 이처럼 철저히 검증하였
다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지요. 이후 이 기술을 바
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까지 넓히려 했
으니까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경찰 헬기
를 만들고, 환자를 수송하는 의무 후송 헬기, 산림
청 헬기, 소방헬기도 개발했습니다. KAI는 육군 기
동헬기 수리온을 만든 사천 본사에서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 ‘마린온’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추석과 같은 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소방헬기가 떠서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를 들은 적 있지요? 불을 끄는 소방헬기가 사람의 생
명도 지켜준다니 참 훌륭하지요.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청 소방헬기가 떠서 불을 끄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준답니다. 철저한 검증으로 기술 개발한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사천시와 KAI가 함께 우주항공열차 상품을 기획
했다는 기사도 있군요. “대한민국 하늘길의 미래를
여는 KAI 견학 프로그램”입니다. 우주항공기술에
관심 있는 여행객이 사천을 많이 방문하면 좋겠네
요. 경남 사천시가 유럽에 해외방문단을 파견해 우
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매결연과 투자협약도
해냈답니다. 여러 방면으로 사천시에서는 지금도 우
주항공산업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비행기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비행기는 쓰임새나 특징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
뉘답니다. 여객기, 수송기, 헬리콥터, 전투기, 폭격
기 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할 때 타본 비행기는 여객기입니다. 사람이나 짐을 싣고 날아가는 비행기지요. 짧은 거리를 나는 여객기도 있고 길게 날아가는 여객기도 있어요.

다음은 수송기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짐을 싣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말하는데요, 군대에서 물자나 무기를 실어 나르는 비행기도 있고, 수입품이나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수송기도 있어요.

다음, 헬리콥터는 제자리 비행을 할 수 있고 비행기처럼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험한 산악 지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구조하는 헬리콥터를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기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비행기예요. 속도가 아주 빠르지요. 전투기 안에는 미사일이나 기관포로 무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폭격기는 전쟁이 났을 때 폭탄을 떨어뜨리는 비행기입니다. 미사일을 싣고 날아가 목표로 하는 장소에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대요. 전투기나 폭격기는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여객기



수송기



헬리콥터



전투기



폭격기



IMF시기에 우리나라 항공회사 삼성, 대우 현대가 사천에서 통폐합을 하여 KAI가 탄생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항공산업의 사천시대 개막 !!

비행기를 부품상태로 들어와 조립하는 과정으로 항공기를 직접 만드는 기술을 완전히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공장 사천 중심 이라니!

진짜 멋있어워!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조립도, 부품도 국산으로 만들 수 있는, 완전한 비행기 국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KAI는 한국형 기동헬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세계에서 11번째 헬기 개발국가가 된 것입니다.

수리온 기술개발 이후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경찰 헬기를 만들고, 원자를 수송하는 의무 호송 헬기, 산림청 헬기, 소방헬기도 개발했습니다.

그 이름은 KUH(Korean Utility Helicopter)-1 '수리온'입니다.




수리온을 철저한 검증으로 기술개발 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전투기나 폭격기를 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사천에어쇼, 우주시대를 꿈꾸다





에어쇼 ©사천시청

해마다 가을이면 사천에서 우주로 꿈꾼다

‘사천에어쇼’(airshow.sacheon.go.kr)는 해마다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다지요. 이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우주항공축제입니다. 공군 곡예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과 우주·항공 체험 프로그램, 비행대회, 전시·홍보관, 학술회의까지 사천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답니다.

항공 전력과 지상 전시, 시범·곡예비행 등 다채로운 볼거리는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해가는군요.

2004년부터 매년 가을에 축제를 열었으니 이제 거의 이십 년이 되어가는군요.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쉬긴 했지만요. 아쉬운 건 2023년 올해부터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에어쇼’는 짝수년에만 개최하고, 홀수년에는 우리 사천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진행한답니다.

올해는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2023 사천에어쇼’를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주항공력 발전, 항공산업 수출 및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다네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우주항공 분야 기초과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종이비행기 대회가 인

기인가 봅니다. 주·야간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니, 미래 우주항공의 꿈을 안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달에서는 아직도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인가요?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지만 믿고 싶기도 한 이야기지요? 우주가 생기고 나서야 지구가 생겼으니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은 과학을 통해 끊임없이 우주를 탐구하지요.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움을 안고 있는 곳이 우주랍니다. 무궁하게 많은 탐구거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아직도 달에서는 정말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을지도….

우주선 속이나 우주 공간을 뚱뚱 떠다니는 사람

을 본 적 있지요? 물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요. 지구에는 ‘중력’이라고 해서 지구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는 중력이 없으니 몸이 뚱뚱 뜨는 것이지요. 참 궁금한 곳인 거는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꿈처럼 여겨졌던 우주 공간을 지금은 환히 알게 되었으니 놀랍기도 하고요.

몇백 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지금도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고 하죠. 인공위성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돌 수 있을까요?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구 둘레를 일정한 간격으로 뱅뱅 돌고 있다지요. 그건 인공위성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날 때 엄청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중력이 잡아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물동이에 물을 담아 빠른 속도로 돌리면 거꾸로 뒤집혀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지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우주복을 입어보고 싶다고요?

우주복은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지요? 우주복에는 발사할 때와 귀환할 때 입는 우주복, 우주선 밖에서 입는 우주복, 우주선 내부 우주복이 각각 있습니다. 우주복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몸을 보호하려고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주복은 엄청 꼼꼼하고 완벽한 설계로 만들어야 한답니다. 사천우주항공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이 우주에 갈 때 입었던 우주복이 있습니다. 이소연이 가져갔던 비상식량도 함께 전시해 놓았어요.

우주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주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요? 화장실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먹을 수는 없대요. 게다가 음식을 많이 가져가면 우주선 무게가 무거워지니 먹고 싶은 음식을 다 가져갈 수도 없지요. 그것도 사천우주항공박물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어디까지?

인공위성이 뭐냐고요? 행성 주위를 회전하는 천체를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성은 중력에 의해 행성이나 달과 같은 천체의 궤도에 올려지는 물체랍니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은? 사람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을 말하겠지요. 주로 지구 주위를 돌도록 설계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일정한 높이, 대략 지상 600km라고 하는데, 그 높이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물체를 말해요. 통신, 항해, 과학연구, 기상관측, 군사 감시 등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게 인공위성이랍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으로 보았겠지만, 인공위성은 로켓을 사용해서 우주로 발사, 그러니까 쏘아 올린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에 처음으로 쏘아 올린 '우리별 1호'입니다. 이어서 끊임없이 연구하여 우리별 2, 3호도 쏘아 올렸고요. 그뿐인가

요? 방송통신위성 ‘무궁화 1, 2, 3호’도 만들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지도를 만들고 국토를 관리하고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위성으로 ‘아리랑 1호’도 만들었어요. 아리랑 1호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다목적 실용위성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자동차에서 지피에스(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를 이용해 길 안내를 받는 것도 그래서 가능해졌지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 우주에 더 관심이 생긴다고요?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2022년 8월에는 한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미국에서 발사되어 달 표면 사진도 찍어 전송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우표도 나왔는데 혹시 본 적이 있나

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찾으면 무엇이든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으니깐요. 이런 기술도 인공위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앞에서 알았죠. 아무튼 우리나라 우주기술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과 노력을 들여서 우주에 가려 할까요? 과학자들의 관심사가 왜 우주로 향하고 있을까요? 아직 우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궁금해서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네요. 그보다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우주에서 얻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언젠가 지구의 자원은 우리 인간이 다 쓰고 바닥 날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우리의 과학으로 밝혀내야 할 일, 지구 사람들이 쓸 새로운 자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지구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우주랍니다.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다고요? 우주가 그렇게 만만

한 곳은 아니지만 꿈을 꾸고 준비하면 못 이룰 일은 없지요.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튼튼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대요. 용기도 있어야겠지요.

미국 우주비행사 선발기준이 뭔지 아세요? 대답하고 용기 있는 사람,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도전해 보세요.

우주항공기술 교육의 도시

사천공항은 1939년 일제가 전쟁에 쓸 목적으로 지금의 자리에 활주로를 닦으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천공항에 항공 노선이 만들어진 것은 1967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대전~진주 노선에 주 3회 운항했답니다. 1969년에 진주공항에서 사천공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대한항공이 연결됐습니다. 사

천공항에서 민간 항공기가 날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어 1992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연결됐어요. 우리나라에 큰 항공회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지요. 요즘은 비용이 적게 드는 항공사도 많이 생겨 짧은 거리에 많이 이용합니다.

사천공항과 제3훈련비행단이 왜 함께 있냐고요? 사실 사천공항의 청사와 계류장, 주차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활주로를 비롯하여 많은 시설이 대한민국 공군의 것입니다. 그 부대 이름이 제3훈련비행단이고요. 여기는 조종사들에게 비행 교육을 하는 곳이니 조종사들의 요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정예 조종사라면 누구라도 사천 제3훈련비행단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앞에서 보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만들어내는 각종 항공기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공군 제52

시험평가비행전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천 에어쇼 등 비행 관련한 행사에도 적극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의 시민들에게도 신뢰받는 공군으로 발전하는 곳이 제3훈련비행단이지요.

사천에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전국에 23개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중에 항공 전문 교육기관은 사천에 있어요. 항공캠퍼스는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는 특화된 대학입니다.

2009년에는 맞춤형 고등학교로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여러 장비를 갖추고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졸업하면 바로 항공산업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말 맞춤형이지요.

KAI가 직접 운영하는 예비에이션 캠프와 항공우

주박물관, 그리고 사천시가 체험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에 가본 적 있지요? 항공과 관련하여 실물 체험과 가상체험을 모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주체험 캠프를 하고, 항공과 관련한 실제 제품을 그대로 야외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곳,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체험교육으로 연결하는 곳이 사천에 모두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 사천의 자랑입니다. 사천의 미래우주항공 발달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우주산업단지가 사천에 있어서 기술력을 자랑하는 각종 비행기를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천에는 일자리도 많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공에 관련되는 관광 상품이 무궁무진하게 개발되고 있어요. 사천에어쇼를 비롯하여 축제도

역시 우주를 향하고 미래를 열어간답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넓은 갯벌과 넓은 땅, 그 하늘을 나는 꿈은 사천에서 미래를 꿈꾸게 한답니다. 바다의 노을이 아름다운 곳, 해양생물의 보고, 바다와 땅과 하늘길이 연결되는 요충지, 한려수도 해상의 중심도시라는 말이 딱 알맞은 도시 사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도시 사천에 살아서 참 좋습니다.

사천에어쇼, 우주시대를 꿈꾸다

'사천에어쇼'는 해마다 5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대지요. 이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우주항공축제입니다.

올해는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삼천포대교공원에서 '2023 사천에어쇼'를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항공우주력 발전, 항공산업 수출 및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대네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우주항공 분야 기초과학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주항공의 꿈을 안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가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움을 안고 있는 곳이 우주입니다. 무궁하게 많은 탐구 거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중력의 비밀과 우주인이 궁금하다면 사천항공우주박물관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1992년에 처음으로 쏘아 올린 '우리별 1호'입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1톤 이상의 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우와!!

2022년 8월에는 한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미국에서 발사되어 달 표면 사진도 찍어 전송했답니다. 우리나라 우주기술이 참 대단하지 않나요?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서 우주비행사가 되겠어!




사천공항과 제3훈련비행단은 함께 있습니다. 활주로를 비롯하여 많은 시설이 대한민국 공군의 것입니다.

여기는 조종사들에게 비행 교육을 하는 곳이니 조종사들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사천에는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와, 삼천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졸업 후 항공산업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려수도 해상의 중심도시라는 말이 딱 알맞은 도시 사천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도시 사천에 살아서 참 좋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무지 빠르게 변합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년 전이 옛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친구들은 이제 손바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른들이 그 나이쯤이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나고 자란 내 고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내 고장에 관한 것들이 시험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다들 지역보다는 서울이 최고라고 여기지요. 그런 현실에서 친구들이 내 고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장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모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될까요?

-본문중



ISBN 979-11-96361-62-8